

분양전환에 웃돈 매매로도 된 공공임대주택

스페셜 리포트

분양전환 앞둔 공공임대 몸값 '쑥' 주거난 해소·분양 차익 기대 커져 지인·주민 커뮤니티 통해 거래 확산 "LH, 공실 통합관리 관리 강화해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경기 파주시와 동동 '가람마을 5단지' 전용면적 84㎡형에 살던 A 씨는 지난해 웃돈(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사실상 임차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란 게 A 씨가 웃돈을 붙인 이유다. 가람마을 5단지는 지난해부터 기존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기 분양 전환(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신청을 받고 있다. 임차권 매수자로서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형 분양 전환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기존 임차인이 내야 하는 돈)는 2억3500만 원. 분양 전환 후 호가는 5억 원에 육박한다. A 씨에게 웃돈을 합쳐도 2억 원 넘게 남는 장사다. ▶관련기사 3면

분양 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주거난과 분양 차익 기대감이 겹치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수요가 늘어서다.

임대아파트 전매시장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은 학습 효과다.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면 커다란 분양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퍼졌다. 파주 야당동 M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엔 피(웃돈)가 붙어도 수천만 원 정도였다. 분양 전환이 돈이 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피가 억대로 올랐다"며 "이젠 물건이 없어

전매가 안 된다. 그나마 나오는 물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지인이나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주거난이 심해지면서 임대아파트라도 마련하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수요가 늘면서 웃돈도 붙어났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 브라운스톤'은 지난해 전용 84㎡형 전매 프리미엄이 3억 원까지 올랐다. 현재 임차 보증금의 세 배 수준이지만, 이웃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10억 원을 넘나드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하다.

분양권 전매가 쉬운 것도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매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은 생업 등 이유로 40km 이상 주거지를 옮겨야 하고 새 임차인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분양 전환가가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공정성을 위해 LH가 임대주택의 공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웃돈을 주지 않는 입주 수요자는 예비 번호를 받고 빈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다. 인기 지역에선 분양 전환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수십 명씩 빈집을 기다리고 있다. 사적 전매 대신 LH가 임대아파트 공실을 통합 관리하면 이 같은 대기 수요는 줄어들면서 웃돈 부담은 낮출 수 있다. 반면 박병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장은 "분양 전환 대상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청약통장을 소진해야 한다"며 "전매 프리미엄은 그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뿌연 미세먼지로 답답

서울시는 14일 오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전날(0~16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연다. 뉴시스

'기업가치 55조' 쿠팡, 내달 뉴욕증시 상장

김범석 의장 창업 11년 만에 꿈 이뤄...1.1조 자금 조달 계획

국내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3월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2010년 창업한 지 11년 만이다. 상장을 통해 쿠팡은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수혈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A 보통주(이하 보통주) 상장을 위해 양식에 따라 12일(현지시간)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알려졌던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증권거래소(NYSE)로 결정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상장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추진 대상은 쿠팡 지분 100%를 가진 모회사 쿠팡 LCC(미국 법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은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국내에서 증권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내 투자자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 행위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 후 쿠팡의 기업가치는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4년 알리바바그룹의 불록버스터 데뷔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IPO가 될 전망"이라며 "쿠팡의 경우 500억 달러(약 55조4000억 원)를 넘는 밸류에이션(평가치)이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쿠팡은 상장을 통해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순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총 30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를 수혈받

았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비전펀드를 포함, 추가 투자가 끊긴 상태다. 쿠팡은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만 4조 원대에 육박한다. 자금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 숨통이 트이면 국내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최강자로 거듭날 것"이라며 "미국의 아마존처럼 온라인 기반으로 오프라인 유통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쿠팡은 코로나 비대면 쇼핑에 힘입어 지난해 총매출액 119억7000만 달러(약 13조3000억 원)를 올렸다. 전년(7조1000억 원) 대비 매출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영업손실도 4억7490만 달러(약 5300억 원)로 전년보다 2억 달러 이상 줄었다. 쿠팡 측은 "상당한 매출 성장을 이뤄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법원 "근로일수 22일 → 18일"

"주 5일 근무로 근로기준 변화" 보험사 배상액 줄어 부담 덜어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기동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인정해왔다. 이 같은 판결이 계속 되면 근로일수 감축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해 보험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과실로 신체 장애가 발생한 A 씨가 담당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에게 7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0여 년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험칙상 인정해 온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

로일수를 감축했다. 법적으로 '가동일수'는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의 미래 수입(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일일수입'의 기초가 된다. 그동안 보험업계 등은 주 5일 근무가 정착된 지 오래인 만큼 가동일수를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에서 18일로 감축한 이유로 사회 환경과 근로 조건 변화를 근거로 제시했다.

1심에서 6000여만 원으로 인정됐던 A 씨의 일일수입은 항소심에서 5100여만 원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치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총액은 1심의 7800여만 원에서 7100여만 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로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5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됐다"며 "201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 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18면에 계속 김중용 기자 deep@

너도나도 "ESG"...평가기준은 천차만별

같은 회사 평가 A와 C- '제각각' "IFRS와 같은 글로벌 표준 필요"

전 세계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생존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ESG 평가 기관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ESG는 이제 기업에 대한 핵심 투자 기준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평가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다만 평가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고, 등급도 천차만별이어서 혼란을 낳고 있다. 표준화된 ESG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현재 ESG를 평가하고 등급을 산정하는 기관은 국내에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KCGS),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이 있다. 해외의 경우 대표적

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톰슨 로이터 등이 꼽힌다.

이들 평가기관은 대부분 ESG 등급이 필요한 기업에 평가항목 질의서를 보낸 뒤 답변을 근거로 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통 기준이 없는 만큼,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ESG 평가 기관마다 기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기준이 다르다 보니 등급도 제각각이다"며 "실무에선 중복 업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투기, SK하이닉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MSCI는 2019년 S(사회) 부문 평가에서 국내 식품기업 오투기에 최고 등급인 A를 줬다. 하지만 같은 기간 톰슨 로이터는 이 회사에 C-등급을 부여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MSCI의 E(환

경) 부문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톰슨 로이터 평가는 B+등급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MIT 연구 결과 ESG 평가기관의 동일 기업에 대한 점수 일치도는 61%밖에 되지 않는다. 기존 신용평가 시장에서는 일치도가 99%인 점을 고려하면 괴리가 크다.

국내 ESG 평가 기관 관계자는 "평가대상인 기업들뿐만 아니라, ESG 평가 기관들에서도 평가 체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보다 ESG에서 앞선 해외에서도 현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체계 표준화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자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ESG 관련 투자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ESG 정보가 재무회계보다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난립하는 ESG 평가 기관 및 기준을 예컨대 IFRS와 같이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면 신뢰성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中·러 눈치보는 유엔, 미얀마 특사 파견 '미적'

본지 유엔대변인실 이메일 질의

미얀마에서 쿠데타 항의 시위가 격화하고 있지만, 유엔 특사 파견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인권이사회가 잇따라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구속력 없는 외침'에 머물고 있다. 특히 특사 파견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반대 견해를 표명한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대변인실은 14일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을 묻는 이투데이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미얀마 특사가 한국 등 유엔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계속 동원하고 있다"며 "미얀마 국민의 요구에 따른 민주주의로의 복귀와 구금자의 즉각 석방, 대화와 화해 등을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특사가 지금까지 미얀마에 파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사는 수용 가능한(agreeable) 조건하에 파견될 준비가 돼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어 "이번 주 버기너 특사는 많은 교류를 했고, 미얀마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의원들과 화상회의도 했다"고 덧붙였다. 'agreeable'은 지난



미얀마 양곤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14일 시위대가 중국의 미얀마 군부 지원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양곤/EPA연합뉴스

특사 파견 묻자 "수용 가능한 조건하에" 원론적 답변 안보리 '구속력 없는' 언론성명... '군부 규탄'도 빠져 자문·보고 역할하는 '특별 보고관'만 현지 방문 요청

해 11월 미국 하원의 한미동맹 결의안과 2008년 한미 쇄고기 협상에서도 등장한 단어로, 외교적으로 상호 동의가 중요할 때 사용된다. 대변인실의 이번 발언은 일부 회원국이 미얀마 제재에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에 대한 간접적인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3일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쿠데타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성명을 내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탓이다.

이후 이들이 지나서야 언론성명을 냈는데, 쿠데타 주체인 군부를 직접 규탄하는 내용은 빠져있다. 언론성명은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결정문건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해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통상 안보리 결정문건은 구속력이 있는 결의(Resolution)와 도덕적 구속력을 갖춘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협의를 통한 언론성명(Press Statement

) 등으로 구분된다.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할 수 없는데, 중국과 러시아 모두 이사국에 포함된 만큼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내정 간섭을 이유로 12일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도 거부했다.

특히 안보리의 알맹이 빠진 언론성명 이후 특사의 대외 활동도 눈에 띄게 잠잠해졌다. 버기너 특사는 안보리 소집 당시 군부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지만, 지난 주에는 톰 앤드루 특별 보고관이 더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다만 특별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3년 임기로 별도 지명하고 있는 직책으로, 협상을 주도하는 특사와 달리 자문 및 보고가 주된 업무다.

특별 보고관 파견을 담당하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본지에 "보고관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답해 현재 특사와 특별 보고관 모두 현지에서 협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본지는 앤드루 특별 보고관에 미얀마 사태 관련 책임과 권한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미얀마 유엔 사무소 역시 자세한 내용은 대변인실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전해 왔다. 고대영 기자 koda00@

국내 부자 톱6 재산 1년간 27% 늘었다

이재용 31%... 4배 경증

세계 부자 순위 500위 안에 드는 국내 최고 부자 6명의 재산이 최근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최소 약 27조 원, 80% 이상 불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세계 500대 부자 순위(2월 10일 기준)에 진입한 한국인 부자는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51위) 등 6명으로 집계됐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177위),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201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330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401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411위)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이 부회장을 제외한 5명의 재산 합계는 약 50조4000억 원(455억5000만 달러)으로 1년 전(247억 달러)보다 약 25조7000억 원(232억4000만 달러), 104%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 작년 10월 별세해 집계에서 빠진 고(故)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간주돼 재산이 1년 전(70억 달러)의 4배인 약 31조 원(280억 달러)으로 급증했다. 다만 이 회장의 재산 상속분을 제외한 이 부회장의 재산 증가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탄핵안 부결' 트럼프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 의기양양

미국 상원이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무죄로 종결했다. 탄핵 이슈가 마무리된 만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국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탄핵안을 부결했다. 탄핵을 위해서는 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표가 필요했지만, 공화당 내 반란표는 7표에 그쳤다. 무죄 판결을 받아 트럼프는 곧바로 의기

美 상원, 유죄 57표·무죄 43표... 가결에 찬성 10표 모자라 바이든 "혐의 논쟁여지 없다... 민주주의 수호 다시 일깨워줘"

양양해져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나라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라며 "이 같은 일을 겪었던 대통령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를 깎아내리고 정의를 정치적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애국 운동

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원을 뜨겁게 달궜던 탄핵심판이 부결됐지만, 관련 이슈를 해소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 드라이브를 더 강력하게 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주도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이슈가 자칫 바이든 정권의 정책 홍보를 가릴 수 있다

고 우려하는 등 그동안 여당과 대통령에게도 탄핵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바이든은 주말에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며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 등 탄핵심판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탄핵안 부결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트럼프에게 제기된 혐의에 논쟁의 여지는 없다"며 "이번 일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며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줬다"고 강조했다.

고대영 기자 koda00@

푸른에너지로
따뜻한 행복을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



공공임대 빈집 떠안았던 부영 직원들 '수억 차익' 횡재

로또 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3.3억 '미사강변 부영' 옆집은 11억 주변 시세 맞춰 감정평가액 산정

집값 마련 못한 서민엔 '그림의 떡' "분양가 산정 때 형평성 제고해야"

지난해 부영그룹엔 '분양 전환 로또'를 맞은 직원이 줄이어 나왔다. 계열사 부영주택이 경기 하남시 미사신도시에 지은 5년 공공임대 단지 '미사강변 사랑으로부영' 아파트가 조기 분양 전환하면서다. 지난해 6월 부영주택은 기존 임차인에게 전용면적 84㎡형 기준 약 3억3000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와 이웃한 '미사강변 센트로' 전용 84㎡형이 10억 원가량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2017년 임차인 모집 당시만 해도 부영주택은 임차인을 채우지 못했다. 부영그룹 직원들이 수천만 원씩 보증금을 할인받고 아파트에 들어갈 정도였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가 웃돈을 주고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집이 된 것은 이 같은 분양 차익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분양 전환 속도를 높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분양 전환 아파트, 수억 차익 '로또'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제도는 일정 기간 임대아파트에 거주한 세입자에게 아파트 매입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일정 기간 시세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임대하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권을 주는 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자가 마련을 돕기 위해 1992년부터 도입.

분양전환 방식
5년 공공임대 감정평가액과 아파트 조성 원가 간 산술평균 이하
10년 공공임대 감정평가액 이하

분양전환가와 주변 시세 (전용면적 84㎡ 기준)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사랑으로부영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2단지
분양가	3억3000만 원	약 3억 원
주변 시세	11억 원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9억 원 (첫마을 1단지)

고 있다.

1992년 5년형이, 2004년 10년형이 도입됐다. 2000년대 중반 판교 등 2기 신도시에서 10년 분양 전환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이때 도입된 분양 전환 아파트는 2010년대부터 차례로 분양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기존 임차인에게 받는 분양 전환가는 임대 기간 만료 시점의 아파트 가치를 감정평가해 정해진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 이하, 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과 조성 원가 간 산술평균 이하'로 분양 전환가가 정해진다. 주택시장에서 감정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10% 이상 낮게 매겨진다. 분양 전환 아파트에서 분양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이 같은 구조 때문이다.

입주자 사이에선 분양 전환 아파트를 두고 우려와 기대가 엇갈린다. 분양 전환가

를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분양 전환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주변 시세보다 싸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을 두고 입주자와 임대주택 운영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줄다리기가 반복되는 건 이 같은 이유에서다. 분양 전환이 한창인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선 감정평가액이 주변 시세의 60~80%대로 책정됐다. 하동 '하동 광교센트럴타운 62단지' 전용 84㎡형은 6억 원대에 분양 전환

됐는데 전환 후 매매가격은 11억 원을 넘어섰다.

◇강남 세곡동·세종시도 기대감=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과 '로또 논란'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도 출구전략을 펴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분양 전환 임대주택 대신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만 해도 수도권에선 신규 공급되는 분양 전환 임대주택 단지가 한 곳도 없었다.

남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도 분양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분양 전환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조기에 분양 전환할 수 있는데, 이를 서둘러 시세 상승에 따른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지구와 세종시 등에서 조기 분양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또 다른 '로또 아파트'를 향한 기대감이 감돈다.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2단지 전용 84㎡형은 지난해 2억~3억 원대에 분양 전환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9억 원을 넘어섰다. 그 사이 국회 등 국가기관 추가 이전설로 세종 부동산 주택시장이 뜨거워진 탓이다. 한솔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론과 분양 전환이 맞물리면 그야말로 로또 중 로또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분양 전환 아파트가 로또 단지가 됐다"면서 "원칙 있는 분양 전환가 산정으로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분양전환가 법정다툼

임차인 "분양가 폭리에 집 빼앗겨" LH "제값 받는 것...더 싸면 배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에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임차인(세입자) 간 주장이 팽팽선을 달린다.

경기 성남시 삼평동 붓들마을 3단지 주민 20여 명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009년 판교신도시 조성 당시 입주한 이 단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운영되다 2019년 분양 아파트로 전환했다. 붓들마을 3단지 주민들은 LH가 과도하게 분양 전환가를 매겼다고 주장한다.

분양 전환가를 두고 법정 다툼에 나선 단지는 이 아파트만이 아니다. 판교지역에서만 산운마을 11·12·13단지, 백현 2·8단지, 원마을 13단지 등이 분양 전환 문제로 LH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거나 검토 중이다.

갈등 핵심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다. 입주 이후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 아파트 감정평가액도 따라서 오르고 있어서다.

판교지역의 경우 2019년 전용 84㎡형 기준 약 8억8000만 원에 분양 전환가를 통보받았다. 당시 주변 아파트의 같은 면적 가격보다는 2억~3억 원 저렴하지만, 고가 아파트 기준(9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김동령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시세가 오른 게 임차인 잘못은 아닌데 그 부담을 세입

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오른 시세를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공공기관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처럼 분양 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감정평가액과 건설 원가 간 평균값으로 분양 전환가를 구하는 방식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택지비와 건축비 원가에 적정 이익을 붙인 분양가 상한제 방식으로 분양 전환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H 입장에서선 난감한 상황이다. 임의로 분양 전환가를 낮추다간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양 전환가를 제값대로 받아야 임대주택 건설에 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LH 사장 시절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라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LH가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2019년 대안으로 금융지원 등을 제시했다. 은행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아 일단 분양 전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다. 이에 김 회장은 "융자를 받아도 원금이 너무 크니 이자 부담도 만만찮다. 1년에 1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며 "12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매일 하는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현대인의 문제적인 식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녹차 정제



고열량, 고탄수화물, 고당류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 골드 녹차추출물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항산화, 뼈 건강 관리
 비타민C,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비타민D가 함유되어 뼈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그린 골드만의 프리미엄 정제 기술 적용
 아모레퍼시픽만의 녹차 정제 기술을 높여, 정제를 만들고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0가지(이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를 함유하지 않았으며, 장용성 코팅 기술로 더욱 속 편하고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농산물 유래 건강기능식품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텍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4차 지원금 '先선별 後전국민' 가닥... 3월 지급 유력

당정, 비공개회의서 논의
3차 지원금보다 큰 규모
민주당 내달 국회서 처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급'으로 뜻을 모았다. 선별·보편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던 여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충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당정은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만 합의한 채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은 설 연휴 이후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편성되는 추경 규모

는 선별 지원금만 할 경우 최소 10조 원, 전국민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다. 이번에 지급될 선별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3차 지원금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당정 간 갈등 양상으로 비춰진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 선별-후 보편' 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진정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해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서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살피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시기를 두고선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김윤호 기자 uknow@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회견'에서 4차재난 지원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착한 임대인·소상공인 등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총 1534만건, 1조863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지방세 분야 혜택은 1226만건, 1조7669억원이었다. 또 기한연장은 1142만건, 징수유예는 3616건이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징수유예 43만건, 체납처분 유예 1138만건 등 모두 268만건, 961억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입 지원을 하

기로 하고 세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15일 통보할 계획이다.

지침은 우선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뿐만 아니다.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간 늦춰준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징수·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는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지침에 안내할 방침이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정부, 손실보상제 연구용역 착수... '소득파약' 관건

지원 대상·규모·방식 검토... 국민 83% "코로나 이후 양극화 심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방식·기준·재원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현재까지 법률에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같은 형식으로 지원 근거만 명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개정·시행이 어려운 법률안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단 손실보상제가 도입돼도 '소득 파약'

이란 속제가 남는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한 손실 규모 파악이 필수다. 하지만 상당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소득 파악이 어려운 간과세자 내지는 납부면제자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기재부는 '소득파약 정부추진기획단'을 가동하고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YTN,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

실 의뢰)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2.7%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졌다'(매우 심해졌다) 52.8%, '어느 정도 심해졌다' 29.9%)고 답했다.

다만 양극화가 심해진 가장 큰 원인으로 '자산 양극화'를 꼽았다.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답한 응답자의 34.1%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자영업자 매출 감소'는 26.1%로 2위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 양극화 원인이라는 응답과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2월호 발매

COVERSTORY 몸속의 숨은 권력자 '호르몬'

PART1 다시 젊어지고 싶은 당신 호르몬에 걸이 있다
PART2 호르몬으로 사람 읽기
PART3 처진 피부와 나잇살 잡는 '청춘호르몬' 관리법
PART4 호르몬의 불균형, 비만
PART5 사·치로 가는 사다리 걷기
PART6 사·치아가 알아야 할 호르몬 질환 10

전통 정원의 멋 77세 노인이 지은 중기발한 '별서'

슬기로운 연금생활 내 연금 언제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한 씨의 식당을 경영하는 69세 남성이자 한 씨 식당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 현금흐름을 고민하던 중 그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보험료 불입만 신경 써왔던 한 씨는 아량이 조기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수령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해왔다.

HORMONE

신라시가 만난 사랑

신라시리더의 품격

직장을 다니는 시니어 대부분은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된다. 개인의 역량이나 열정이 무기가 됐던 조직원 시절과 다르게 전체의 성과와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리더십의 성패를 가른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직장생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니어 리더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야 할까? 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려 한다.

구체적 부동산 2021 부동산 트렌드

지나가는 '부동산'의 해라고 할 만큼 부동산 이슈가 사회를 뒤덮었다. 영끌, 파타비팅 등 부동산 관련 온갖 신조어와 이슈로 시끌벅적했다. 그렇다면 2021년 신축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신설날 풍속도

코로나 Off 위한 랜선 On 연휴 나기

헬스+

갱년기 피부 변화의 원인, 에스트로겐 제대로 알자

초등1~2·고3 매일 등교... '5인 모임' 직계가족은 허용

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학교, 연기 없이 내달 2일 개학과외·학원 사적모임 대상 제외 결혼식·장례식 99명까지 허용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학교는 개학 연기 없이 다음 달 2일 문을 연다.

1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일선 학교들은 다음 달 2일 개학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전면 등교 수업으로 진행되며, 이의 학년은 밀집도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수업이 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내용 (15일부터 적용)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허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 돌봄 필요한 동반 인원 등은 예외)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 스탠딩공연장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영화관·공연장	스포츠 관람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종교활동	
2단계 (수도권)	운영 제한 해제	운영시간 제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오후 10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관중 입장 10%	100명 미만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1.5단계 (비수도권)	운영 제한 해제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오후 10시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오후 10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관중 입장 30%	500명 미만 ★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형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 적용 ※ 출처: 보건복지부

된다.

대신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와 별개로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일부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행사·시험, 공무·경영활동, 스포츠경기, 돌봄·임종 등에 대해서 사적모임 금지가 예외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수도권은 99명까지, 비수도권은 4㎡당 1명까지 이용이 허용

된다. 과외·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도 영업활동으로 간주해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목적으로 모여서 연습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민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 자원봉사 등도 인원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되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 착용, 띄워 앉기,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학원은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8㎡당 1명으로 밀집도를 관리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충족하는 경우 운영시간도 제한되지 않는다. 기존 방역수칙에 따라 인원을 4㎡당 1명으로 관리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한 칸 띄울 때에는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이 가능하나, 소리를 내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 성가대 운영 등은 금지된다. 또 종교활동 외에 종교 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활동,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종교활동 시에는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회의는 재정(회계), 시설 관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손현경 기자 son89@

국내 업체들 갈 길 멀지만

K백신 내년 상용화 “시장성 충분”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추세 해마다 접종 가능성 높아져 “백신주권” 위해 지원 절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를 시작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백신 개발에 돌입했지만, 다국적 제약사는 물론 러시아나 중국과 비교해도 아직 갈 길이 멀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임상에 진입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등 5개 기업 총 6종이다. 모두 1상이나 1/2상의 임상 초기 단계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10일 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가 첫 번째로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화이자의 ‘코미나티주’는 지난 달 25일 허가심사에 들어가 2월 말~3월 초 사이에 허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19 백신의 제조사가 허가를 신청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다국적 제약사의 백신만으로 진행될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내년을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장기화한 만큼 효능만 확실하면 개발 순서가 밀려도 시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백신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접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후발 주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11월 ‘NBP2001’의 임상 1상 진입에 이어 빌&벨린다케이츠재단과 전염병대비 혁신연합(CEPI)의 지원을 받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 현황

기업	후보물질	임상 단계
SK바이오사이언스	GBP510	1/2상
제넥신	NBP2001	1상
유바이오로직스	GX-19N	1/2a상
셀리드	유코백-19	1/2상
진원생명과학	AdCLD-Cov19	1/2a상
	GLS-5310	1/2a상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GBP510’의 임상 1/2상에 착수했다. 미국 워싱턴대학 항원 디자인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BP510은 면역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의 항원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으로,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임상을 시작한 제넥신은 지난해 말 후보물질을 ‘GX-19N’으로 변경, 새롭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셀리드와 진원생명과학은 지난 달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임상 1상에서 30명, 2a상에서 120명을 모집하는 셀리드는 상반기 내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2b상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원생명과학은 임상 1상 중간평가에서 안전성을 확인, 백신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투여량을 2배로 늘렸다. 내년 상반기 사용이 목표다.

업계는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의 백신 개발을 위해 2조3000억 원을 투입한 데 비해 우리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10분의 1 수준(2627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팬데믹 상황이 끝나더라도 개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나아가 책임지고 구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백신 개발은 백신주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금융투자협회심사필 제 17-04981호(2020.11.15-2021.11.14)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76-86호(2020.11.15-2021.11.14)

KYOBO 교보증권

스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권 학생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뱅크, 롯데백화점, 영풍문고, 반디엔터테인먼트 특가 할인 등 10% 청구 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J, GS25, 세븐일백화점 등 10% 청구 할인
S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액요일별 리터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IF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선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거래인증
- 6 신청완료 카드배송 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중립적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은행에 따라 채권보험공사가 보충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배타 시 0.014%의 주선배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B 보통주>

김범석 의장, 주당 29배 의결권 확보... 주총서 막강 파워

NYSE 직상장 배경은

쿠팡이 국내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로 직행하는 배경이 뭘까. 업계와 국내 증시에서는 차등의결권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쿠팡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A 보통주 상장을 위해 S-1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쿠팡은 나스닥 상장이 점쳐졌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택했다. 주식 수량과 공모 가격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NYSE 직행 배경은 차등의결권? = 국내 기업이 NYSE에 직상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쿠팡의 나스닥 상장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왔다. 나스닥은 당장 실적 보다 기업의 미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특히 하이테크 기업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인 만큼 만성 적자인 쿠팡에게 제격인 시장으로 평가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쿠팡은 나스닥이 아닌 NYSE로 직행하며 관련 업계를 놀라게 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 증권거

‘차등의결권’ 보장받는 김 의장 적대 세력 대상 경영권 방어 가능 NYSE의 상폐권한은 부담으로

쿠팡팬 등 1000억 상당 주식 제공 2025년까지 5만명 추가 고용

래소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그만큼 상장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소가 상장폐지 권한도 갖고 있다. 11년 연속 적자인 쿠팡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범석(사진) 쿠팡 이사회 의장이 차등의결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NYSE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일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나스닥에서도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만 쿠팡이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는 알리바바와 정면승부를 하기 위해서 NYSE를 택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쿠팡 주식은 클래스A 보통주와 클래스B



보통주로 구성되는데 클래스B는 클래스A에 비해 주당 29배의 의결권이 있는 ‘슈퍼주식’으로 모두 김 의장이 보유한다. 즉 지분 1%만 가져도 29%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경우 회사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적대적 M&A 등에서도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동의가

차등의결권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있어야 하는데 최대주주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 등 그동안 쿠팡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그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에어비엔비 등 주요 글로벌 테크기업에서도 창업주들이 모두 차등의결권을 보장 받은 바 있다. 쿠팡은 이밖에도 8가지 종류 주식이다.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가지각색 보통주 전환조건을 달고 있는 주식들로, 클래스C-클래스J가 그것이다. 쿠팡은 아직까지 투자자별 지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주식들이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지분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쿠팡팬’ 등에 1000억 주식 나눠준다 = 쿠팡은 IPO 신고서를 통해 2025년까지 5만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한해 평균 1만 명씩 고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쿠팡의 임직원 수는 5만 명으

로 4년 뒤에는 1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작년 3분기 기준 10만84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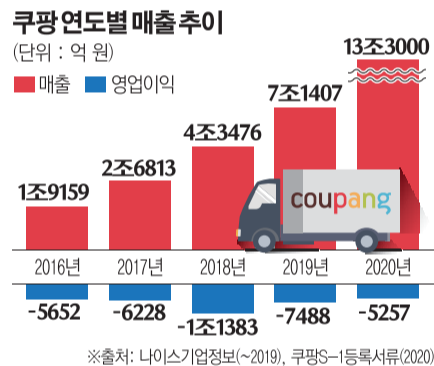
쿠팡은 이 신고서에서 ‘회사 역사상(미증시 상장이라는) 중요한 단계를 축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객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frontline workers and non-manager employees)에게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들 직원이 회사의 근간이자 성공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어비엔비는 지난해 상장 당시 숙박공유 호스트를 위해 비의결주식 920만 주를 ‘숙박공유 호스트 기부펀드’(Host Endowment Fund)에 기부했고, SEC는 우버 운전자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1년 보상은 15%까지 지분으로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버 운전자들이 월급 대신 우버 주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의장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프로토크 경제’를 실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잠재력 키운 ‘한국판 아마존’... 몸값 55兆 ‘핑크빛 전망’

작년 쿠팡 앱 이용자 26% 증가 매출 2배 늘고 적자 규모 감소세 자금 수혈 통해 해외 진출 시너지



평가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의 대표인 아마존과 음식배달업체인 도어대시, 식료품 배송업체인 인스타카트를 합친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리바바의 기업가치는 IPO 당시 1680억 달러(약

186조 원)로 평가됐다.

쿠팡의 기업가치가 이처럼 높게 평가되는 배경은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매년 고속성장하며 영향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2010년 소셜커머스로 사업을 시작한 쿠팡은 2014년 직매입 모델인 로켓배송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고객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지?’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쿠팡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단순히 빠른 배송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김 의장은 이후 쿠팡은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와 핀테크 사업인 쿠팡페이, 유료멤버십 ‘쿠팡와우클럽’, 실

시간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 ‘쿠팡플레이’,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를 통한 택배 등 다양한 신사업에 뛰어들며 덩치를 불렀다. 혁신이 중요한 온라인 사업 시장에서 김 의장의 혁신 의지가 입증된 것은 물론 쿠팡이 이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쿠팡의 최근 성장세는 매섭다. 쿠팡은 지난해 2배가량 매출이 늘어났으며 적자폭도 큰폭으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단순히 적자 폭을 줄이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비용(500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해 쿠팡을 이용한 이용자 수는 14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가량 늘었다. 이는 한국 인터넷 쇼핑 인구를 4800만

명으로 볼 때 30% 수준에 이른다. 특히 1480만 명 가운데 매달 이용료를 결제하는 로켓와우 멤버십 고객은 32%에 달한다. 이용자당 구매 금액도 161달러에서 256달러로 60% 증가했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위가 높아지며 아마존의 길을 걸을 잠재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다.

쿠팡은 이번 상장으로 약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이번 상장에 따른 자금으로 홈플러스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인수해 국내 시장서 영토를 넓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아마존처럼 온라인 기반으로 오프라인 유통으로의 진출할 여지도 있다”면서 “자금 숨통이 트이면서 국내 이커머스뿐 아니라 유통업계 최강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남주현 기자 jooh@

www.hauri.co.kr

“ 새로운 바이로봇으로 보안을 강화하다 ”

더 강력한 기능으로 새로워진 통합백신 - 바이로봇

- 듀얼엔진과 행위기반기술이 적용된 통합보안솔루션 - 바이로봇 시큐리티 1.0
-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 - 바이로봇 시큐리티 서버 1.0
- 조직내 백신 및 보안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 바이로봇 매니저 1.0

(주) 하우리 | 서울시 동작구 만안로 104 | 대표전화 02-3676-1100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 나갑니다

변화된 일상 속 우리의 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며, 끊임 없이 발전하는 첨단 기술.
 첨단 반도체는 언택트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일본후보다 기부율 높아도 사회공헌 저평가

글로벌 ESG 평가, 70개국 360개 난립
기관마다 가중치 달라 모건스탠리 등 '기부 이력 제외'
"제대로 된 측정, 투자 시작"...SK, 국제표준 개발 선도

최근 ESG 평가 기준 표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글로벌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ESG 평가를 근거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글로벌 표준이 없어 도입 초기 혼란기를 겪고 있다는 게 문제다.

소비자들 역시 기업들의 ESG 성과를 유심히 살펴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이 추정한 글로벌 ESG 펀드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5조 달러(약 5경 원)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ESG를 포함하는 SRI(사회책임투자) 펀드 설정액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ESG를 포함하는 SRI(사회책임투자) 펀드 설정액은 최근 1년 새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다. SRI펀드는 환경, 사회 등을 고려한 펀드로, 국내 ESG 펀드를 말할 때 유사한 범주로 여겨진다.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을 골라내겠다는 의미다.

◇"해외 기관 평가와 국내 평가 달라" = 문제는 ESG 측정 기관이 난립하고 있으며,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데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개국에 걸쳐 360개 정도의 ESG 평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두철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미국만 해도 6~7개의 주요 평가 기관이 있는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특히 한국 기업은 해외 기관 평가와 국내 기관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이 불리한 평가를 받기도 한다. 최근 기업들이 탄소배출 저감 활동을 펼치면서 배출량이 감소세지만, ESG 평가 기관에는 절대적인 탄소배출량이 더 중요하다.

사회공헌 활동도 마찬가지다. 현대차·기아는 영업이익 대비 기부 비율이 토요타나 혼다 등 일본 차 업체보다 높다. 그러나



최태원 SK 회장은 ESG 화폐화 측정의 글로벌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부가 톱순위인 ESG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 모건스탠리는 평가할 때 기부 이력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개인·기관 ESG 투자 정보 격차 커 =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도 큰 문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지난해 10월 열린 'VBA 2020 Korea'에서 "투자자는 같은 프레임으로 각 기업을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한다"며 "ESG 표준화와 제대로 된 측정은 투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수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은 "특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투자자보다 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는 ESG 정보는 결국 비대칭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VBA(Value Balancing Alliance)는 ESG 화폐화 측정의 글로벌 표준 개발을 위해 지난해 설립된 다국적 기업 연합체다. SK그룹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ESG 표준화 전까지 기본에 충실해야 =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평가 기준 표준화까지는 시간이

결릴 수밖에 없고,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표준화 이후 결국 좋은 회사로 인정받는다 는 얘기다.

이경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 따로, 사업 따로가 아니라 사업 이념과 포트폴리오에 녹아드는 ESG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차원보다는 기업 가치에 ESG를 내재화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수근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도 "ESG 기준이 수백 개에 이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업은 자체적으로 ESG 관련 경영철학과 비전, 전략 등을 꾸준히 실행해나기만 된다면 된다"고 말했다.

◇주요 제조 기업, ESG 경영 천명 =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제조 기업들은 환경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ESG 노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전사 차원 협의기구인 지속가능경영협의회를 CFO 주관으로 격상했다. 또 사업부 단위에도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을 설립해 제품 기획에서부터 AS 등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제품과 서비스에 구현하도록 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개별 기업으로선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개선해야 하는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ESG 경영 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주요 ESG 안건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자사 개선방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베이징 포럼에서 "무엇보다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 사회적 가치, 신뢰받는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ESG 경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며 "ESG 가치 측정 체계가 고도화될수록 기업들의 경영전략 및 행동 변화도 가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노우리 기자 we1228@
 유창욱 기자 woogi@

기업별 주요 ESG 활동

- 삼성전자**
 - 사업장별 ESG 성과 산출해 평가
 - 사업부 단위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설립
 - 업계 최초 물 사용량 저감 인증
- SK하이닉스**
 - CEO 직속 ESG TF 운영
 - 10억 달러 규모 그린본드 발행
 - 협력사와 '에코 얼라이언스' 결성
- 현대차**
 - 2040년까지 주요 시장 제품군 수소 전기차로 유엔과 '지속 가능한 발전' 업무 협약
 -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 현대제철**
 - 3대 지항침, 4대 추진전략 등 중장기 과제 도출
 - '탄소경영 우수기업' 선정, 녹색채권 발행

"직원·고객·사회 생각하는 기업이 승리자"

코로나가 앞당긴 ESG 경영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기관 및 기준이 난립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ESG 경영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대다수 기업 오너 및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주요 키워드로 ESG 경영을 꼽았다. 사회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경의 E(Environment), 사회의 S(Social), 지배구조의 G(Governance)가 합쳐진 ESG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기업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될수록 유리하다.

만약 어느 개인 투자자가 한 기업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금을 넣었는데, 그 기업이 해당 재화를 유해 물질 생산에 쓰거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에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당장 회수하고 싶을 수 있다.

이처럼 친환경, 윤리적이면서도 지배구조가 바람직한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이들에게 ESG는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된다.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키워드도 ESG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경제 체제 전반에 충격을 가하자 정부와 기업들은 그간 눈여겨보지 않았던 비

재무적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절감했다.

주요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ESG를 전사 리스크 관리나 전략기획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도 지난해부터다.

무엇보다 ESG 역량이 좋은 기업이 생존력도 뛰어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래리 핑크 블랙록 CEO는 지난해 7월 주요 다국적 기업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명백해진 점은 직원과 고객,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주의자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이 같은 기조는 더 명확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공약으로 기후 변화, 평등, 기업 투명성 등 ESG 이념에 부합하는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ESG 투자가 주류로 자리 잡았다. 올해 들어 대형 기관투자자와 펀드들은 화석연료 에너지 대신 친환경 산업 주식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으로서도 이 같은 변화는 새로운 기회다. 이경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 경영을 옛날에는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비유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인식했었다"며 "그러나 요즘은 ESG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노우리 기자 we1228@

굿네이버스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세상
 굿네이버스가 함께합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굿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서울시정 공동운영”



안·오·나의 ‘정치실험’

오세훈·나경원 제안에 안철수 “단일화 의지로 알겠다” 양당 연정 수면 위... 민주 “나눠먹기 약속 민망”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 예비후보와 ‘서울시정 공동운영’ 제안에 대해 “단일화 의지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겠다”고 말했다. 이는 중도층의 지지를 확장하기 위한 노림수로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안 후보는 서울 중구 명동 상권을

찾은 자리에서 “저는 초기부터 범야권 인재를 널리 등용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와 나경원 예비후보 역시 제3지대 안철수 예비후보와 함께하는 ‘서울시 공동운영’에 뜻을 모았다. 오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서울시를

함께 힘을 모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해서 그런 형태의 단일화가 된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기대해볼 만한 것”이라고 밝혔고, 나 후보도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성공적인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하면, 서울시 공동 운영은 당연히 실천해야 할 기본 과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금태섭 전 의원도 같은날 오후 남산 국립극장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협치와 통합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반갑고 환영한다”며 “선거공학을 넘어서 선거 후에도 협치가

이뤄질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두 예비후보가 제시한 ‘서울시 공동운영 구상’에 안철수 후보가 긍정적인 뜻을 드러내면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연정 방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1년 남짓한 임기를 수개월씩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뜻인지, 동작을 나경원·광진을 오세훈·노원병 안철수로 시정을 나눠서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다”며 “나눠 먹

자고 약속하는 모습이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천만 시민의 것이지, 야권 후보자들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서울시는 여러분의 생일 케이크가 아니다”라면서 “실체 없는 공동운영 제안은 결국 ‘내 밥그릇 하나는 제대로 챙기겠다’는 얇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유능한 한 명의 선장이지만, 무능한 여러 명의 선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박병석 의장, UAE 아크부대 격려 (단위: 만 명) * 출처: 국토교통부

한미연합훈련 내달 둘째주 진행

9일간 실시... 규모·일정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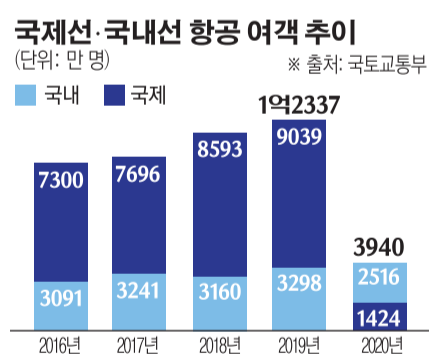
한미연합훈련이 3월 둘째 주에 시작돼 9일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둘째 주에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 훈련 기간은 총 9일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훈련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훈련의 대체적인 시기와 기간은 가닥이 잡혔지만, 훈련 수준과 규모,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아직 유동적이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북한 반발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훈련

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선 환수되는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이번 훈련에서 어떻게 할지를 두고 양측은 아직 이견을 조율 중이다. 한국 측은 이번에 FOC 검증과 평가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코로나 상황 등을 이유로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8월 18~22일 진행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코로나로 훈련이 대폭 축소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훈련을 따로따로 진행하면서 FOC 검증이 ‘반쪽’에 그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한미는 코로나 상황에 진행된 작년 8월 훈련 경험을 토대로 이번 훈련의 시행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코로나만 문제였다면 해외 미군 증원 인력이 일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코로나에 막힌 하늘길... 작년 항공여객 68% ↓

3940만명 이용 '21년 만에 최저'... 국제선 84% 감소

지난해 항공여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항공여객은 3940만 명으로 지난해 1억2337만 명과 비교해 68.1% 급감했다. 이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다. 항공여객 수만 보면 1999년 3789만 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다. 국제선은 1424만 명으로 84.2%나 줄었다. 이는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제선은 1998년 외환위기로 15.0%,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으로 5.5%,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각각 4.1%, 5.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일본(-88.2%)·중국(-



87.8%)·아시아(-83.4%)·미주(-72.3%)·유럽(-82.2%) 등 전 노선이 감소했다. 지난해 국제여객에서 중국이 15.8%의 비중으로 일본(15.6%)을 근소하게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인천(-83.1%)·제주(-89.4%)·김포(-87.3%)·김해(-88.0%) 등 전 공항이 감소했고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는 82.3%, 저비용항공사는 86.7% 급감했다. 국내선 여객도 251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7% 줄었다. 국내선 여객이 감소한 것은 2018년(-2.5%) 이후 2년 만이고 2014년 2464만 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3월 110만 명으로 바닥을 찍은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11월에는 294만 명까지 증가했다. 항공화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운휴 여객기가 증가(수하물 감소)하며 화물은 전년 대비 23.9% 감소했고 수하물 제외 화물은 전년 대비 0.6% 감소에 그쳤다. 국제화물의 경우 전 지역의 수하물 감소로 전년 대비 23.5% 감소했으나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은 미주(12.8%)·중국(4.6%)·기타(1.2%)지역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국적 항공사의 수하물 제외 화물의 운송실적도 전년 대비 8.1% 성장하며 201만 톤을 기록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온라인거래 약관 분쟁조정 신청 156% ‘쑥’

작년 플랫폼 관련 59% 증가 직간접 피해구제액 1207억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온라인 거래 관련 분쟁이 대폭 늘었다. 특히 약관 분야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56%나 급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156%(199건→310건), 5%(928건→976건) 증가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98건→320건)한 데 기인한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배달앱, 열린 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약 59%(32건→51건) 늘어난 것이 전체 접수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 등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약관 및 일반공정거래 분야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조정 신청 건수는 3008건으로 4년 연속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972건이며 이중 조정 성립 건수는 130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 대비 5%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 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분쟁당사자가 조정원의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직접 피해구제 금액은 총 1091억 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총 1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늘었다. 이중 하도급 분야의 경우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했음에도 직간접적 피해구제액(937억 원)은 12% 이상 증가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41억 원으로 전년보다 402% 늘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등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한다 따른 것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앞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분쟁 유형이 복잡·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 구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韓 외교 인력·예산, 일본의 3분의 1

입법처 “외교역량 강화 필요”

한국의 외교 인력과 예산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여서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한국 외교부 예산은 2조

6171억 원, 외교 인력은 204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외무성과 비교했을 때 예산(7120억엔·약 7조5422억 원)과 인력(6358명) 모두 3분의 1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한 국가의 외교역량을 예산과 인력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최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외교환경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외교 역

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일본 외무성이 최근 국제분쟁 대비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한국 정부도 국제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련 조직과 전문성의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최근 역사 문제와 관련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며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후쿠시마 7.3 강진... 10년前 '동일본 대지진' 데자뷔

100여명 부상·90만 가구 정전
원전 연료 수조서 오염수 넘쳐
스가 "향후 일주일내 여진 주의"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열도가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지진이 일본 관측 사상 최대 지진이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앞두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악몽의 재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사이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8분께 발생한 이번 지진의 진원은 일본 미야기현(혼슈) 센다이 남동쪽 103km 해역(북위 37.7도, 동경 141.8도)이다. 해당 지진 이후 규모 3.5 이상의 여진이 20여 차례 발생했다. 이번 강진으로 후쿠시마 일부 지역과 미야기현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가 6강에 달했다. 동북해안을 진원으로 하는 진도 6의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 여진이 발생한 2011년 4월 7일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이다. 수도 도쿄에서도 진도 5의 진동이 느껴졌다.

14일에도 오전 3시 24분쯤 후쿠시마현 북쪽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오후 4시 31분 무렵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2 지진이 각각 발생하는 등 전날 강진으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NHK방송은 이번 지진 영향으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을 중심으로 부상자가 100여 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교통과 전기·수도 공급에도 차질을 빚었다. JR동일본은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를 잇는 구간의 신칸센 운행을 중단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90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으며 후쿠시마현 각지에서는 수도물 공급이 끊겨 당국이 긴급 물 공급에 나섰다. 강진의 여파로 폐로 작업 중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전 5-6호기와 폐



로가 결정된 제2 원전 1호기에 있는 사용 후 연료 수조에서 일부 물이 넘치기도 했다. 다만 정전은 14일 오전 대부분 해소됐으며 원전 모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일본 정부는 강조했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나 쓰나미 피해도 없다.

전날 지진은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주년을 앞두고 발생했다. 당시 도호쿠 지방에서는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 지진이 일어났으며 이 영향으로 2만 명이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 여진'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암석판(플레이트) 중 태평양판 내 발생한 지진"이라며 "동일본 대지진 1개월 후 발생한 여진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수준의 지진에 주의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심야에 이동을 삼가고 여진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진 피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코로나19 확산 속 대피 주민은 화장실 소독, 마스크 착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13일 밤 규모 7.3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인 규모 9.0 지진과 쓰나미, 원전 방사능 유출사태 등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10주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강진이 발생해 일본 열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날 후쿠시마시의 한 주류업체 매장 점주가 지진으로 바닥에 쏟아져 파손된 술병들을 정리하고 있다. 후쿠시마/AP연합뉴스

'슈퍼 마리오' 드라기, 伊총리 취임

방역·백신·경제위기 등 난제 산적... 첫 내각회의서 "국가부흥 사명" 강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시절 유럽을 재정위기에서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슈퍼 마리오'로 불렸던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가 이탈리아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경제 성적을 기록했던 이탈리아를 수렁에서 건져낼지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드라기 신임 총리는 이날 23개 부처 각료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인 로마 퀴리날레궁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돌입했다. 취임식 이후에는 총리 관저인 키지궁으로 자리를 옮겨 곧바로 첫 번째 내각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드라기 총리는 현재 이탈리아가 직면한 보건, 사회, 경제 위기를 일일이 거론하며 국가 부흥이 새 내각의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라기 총리는 1946년 이탈리아 공화국 수립 이래 30번째 총리이자 67번째 내각 수장으로 기록됐다. 또 2011~2012년 중립 내각을 이끌었던 경제학자 출신 마리오 몬티에 이어 10년 만에 비정치인 출신 총리다. 무엇보다 이번 이탈리아 총리 취임



마리오 드라기 신임 이탈리아 총리가 13일 첫 내각 회의를 열고 있다. 로마/로이터연합뉴스

은 지난 10년 새 7번째로, 난관에 봉착한 국정 운영 상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ECB 총재로 취임해 8년간 유럽연합(EU)의 통화정책을 담당했던 드라기 총리는 당시 과감한 행보와 발언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그의 이름에서 딴 슈퍼 마리오라는 별명도 생겨났다.

그랬던 드라기 총리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막대한 책임과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EU가 지원한 2000

억 유로(약 268조 원) 규모의 자금을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할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보급도 과제다. 지난해 2월 유럽에서 가장 먼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겪었던 이탈리아는 지금도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300~400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주세페 콘테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부터 야간 통행 금지와 장거리 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8.8%로 EU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58% 규모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CNBC는 "인민과 인프라 개발, 복지 등 현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이는 정당들이 포함된 이탈리아 연립정부에서 드라기 총리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라며 "매일 수백 명이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고 총리가 상황을 정리할 시간은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명 기자 kodae0@

글로벌 '증시 낙관론' 최고조 주식펀드 '64조 뭉치돈' 몰려

글로벌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주 전 세계 주식펀드에 유입된 자금이 580억 달러(약 64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분석한 리서치 업체 EFPFR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0일 기준 일주일간 363억 달러 자금이 들어와 전체 유입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술주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54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들은 전 세계 채권펀드에도 131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반면 현금금은 106억 달러 줄었다.

역사적인 초저금리 기조와 올해 글로벌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로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FT는 풀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조9000억 달러(약 2103조 원) 슈퍼 부양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침체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투자자들의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온라인으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자금이 크게 움직여야 할 때"라며 "G7은 경제를 어떻게 지원

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추가 부양책 기대로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2일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개인투자자들은 로빈후드와 TD아메리트레이드 등 수수료 없는 증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시장을 습격했다. 또 다른 미국 증권사인 찰스슈왈브는 "지난달 신규 계좌 개설이 전년보다 200% 이상 늘어난 1095건에 달했다"며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급속한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oA는 "부유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뱅킹(PB) 부문에서 운용 중인 자산의 약 63%가 주식에 할당됐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채권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점점 더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정크(투기) 등급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이는 과도한 버블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도 고조시키고 있다. 도이체뱅크의 짐 리드 리서치 전략가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높다"며 "그러나 지난해 초 사상 최대인 2조2000억 달러 부양책과 같은 해 말 성립된 9000억 달러 부양방안에 이어 또 다른 재정 투입은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킨다. 과열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ARM 인수' 엔비디아, 사방서 제동

美 FTC '반독점' 조사... 고객사 퀄컴·구글도 반기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을 인수하려는 미국 엔비디아의 계획이 규제 당국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해당 안전에 대해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다수의 IT 경쟁사들이 이번 인수를 문제로 삼고 있는 만큼 해당 이슈가 여러 국가로까지 번질 위기에 처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FTC가 엔비디아의 인수 계획에 불만을 제기했거나 거래에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들을 상대로 의견요청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FTC는 현재 인수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시작했으며, 유럽과 영국의 규제 당국 역

시 자체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도 인수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기업들로 퀄컴과 구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할 경우 주요 기업에 칩 설계 기술을 제공하는데 있어 막대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고객사인 이들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RM은 반도체 대기업들에 칩 설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엔비디아가 인수할 경우 애플과 인텔, 삼성전자, 아마존, 화웨이 등 그동안 ARM의 기술을 사용하던 회사들이 지급해야 할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계약을 문제 삼은 기업의 한 관계자

는 "엔비디아는 ARM의 설계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들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사 데이터 센터 칩 사업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며 접근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엔비디아 측은 구매 비용 책정만으로 시장의 중립성을 어지럽히는 동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성명에서 "규제 당국과 고객사 모두 자사의 인수 계획이 ARM의 개방형 라이선스 모델을 지속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봐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엔비디아는 인수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이들 당국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에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고대명 기자 kodae0@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요!

우리동네 가게를 소개합니다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편 >



미용협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명품 헤어샵
김미숙 헤어스튜디오
김해시 내동 1095-7 | 055-336-3086



60여년 부산 문화 역사를 대표하는 서점
문우당서점
부산광역시 중구 태평로 41-1, 2층 | 051-241-5555



40년 경력의 신선한 찌집
고메회초밥
부산광역시 동구 38방로38번길 3 1층 | 051-635-0777



미적 감각과 실력을 겸비한 미용 전문점
이정순 헤어닥터
김해시 삼정동 652-6 | 070-7377-6197



부담 없는 가격의 고깃집
박가네 장터삼겹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305번길 21-1 | 051-257-0092



상상하고 저렴한 직거래 장어 전문점
자연 품은 장어 다담재
부산광역시 진구 당감동 388-1 | 051-894-3356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공간
오늘도, 뷰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구안동로 111 생드인테크 부산기동 111호 | 010-0261881



365일 절인 배추 취급, 야채 전문 상회
경북상회
부산광역시 진구 범강동 889 평화가설시장 | 051-631-4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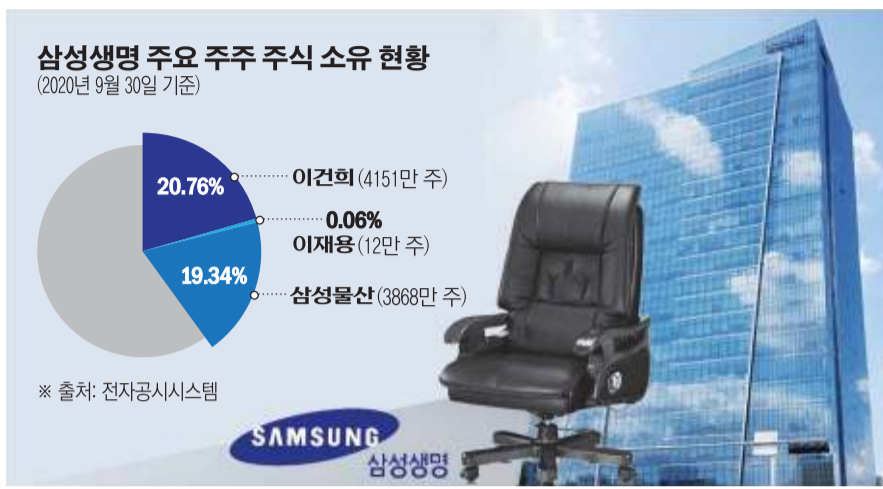
개인 연습실에서 1:1 레슨 지도
뜰앞에 음악학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남로 82 상인빌딩 3층 | 051-522-0028

삼성생명, 금감원 최대주주 자격심사 또 비켜가나

이건희 회장 별세로 심사 보류
유족, 최대주주 변경 연장 신청
2019년 이어 '무늬만 심사' 논란
업계 "특수 상황... 추후 진행해야"

금융감독원이 올해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자 금융권에선 '양꼬없는 짬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으로 최대주주 심사의 핵심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심사는 사실상 비껴가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일단은 보류하고, 추후 적절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금융사에 최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 자료제출을 오는 26일까지 제출받고 있다.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위한 것으로 2년마다 이맘때마다 실시한다. 2017년 첫 심사가 이뤄졌고 올해가 세 번째다.



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대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추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 계열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은 고 이진희 회장이 된다.

금감원은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개인의 해당 금융회사 소유 주식 수와 지분율을 상세히 적어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 간 순환출자구조 여부와 순환출자구조인 경

우에는 기업진단과 동일인을 구분해 요청했다.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의 주주명과 지분율, 최대출자자, 최대출자자와의 관계를 적도록 했다. 첨부서류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및 출자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등), 결격사유 조회 회보서, 소속기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그밖에 기관에서 문책경고의 제재를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청했다.

문제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핵심인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리가 공석이어서 이번 심사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으로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최대주주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떻게 작성해 답변할 건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변경 신청은 3개월 이내지만,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유족들이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원회도 이를 승인했다. 본격적인 최대주주 변경은 빨라야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 삼성금융 계열사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주목하는 건 논란이 이번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19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 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건강상 문제로 최대출자자 1인에 대해 심사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고 이 회장이 이미 장

기 와병 중이었고, 금감원은 이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 2017년 첫 심사에서도 이 회장의 심사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그대로 심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재용 부회장을 최대주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삼성생명으로선 이도 부담이다. 삼성생명 최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되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되지 못한다. 이 부회장에 관한 검찰 기소내용에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 "최대주주 자격 심사의 핵심이 삼성생명인데 사실상 이번에도 적절한 심사를 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인 것을 감안해 추후 삼성생명은 별도로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바뀌면 금감원에 보고할 것이고, 그때 판단하겠다"고 했다.

서지연 기자 sjy@

OMAR SHARIF PARIS

고객과 함께하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오마샤리프화장품(주)

고기능성 스킨케어 전문 제조 기업, 오마샤리프화장품은 자연에서 얻은 성분에 차별화된 기술을 담아 주름, 미백, 트러블 등 소비자 니즈에 맞는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누에고치에서 찾은 실크프로테인과 꿀벌에서 얻은 벌침액을 비롯, 돈태반과 누에실생 등 오마샤리프화장품만의 기능성 원료 개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GMP와 화장품 국제인증 ISO-22718을 획득,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마샤리프화장품은 최적의 생산 환경에서 최상의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여정에 함께 합니다.

●사업분야 : 화장품원료 및 생산 연구개발 / 의·약외품 개발 및 생산 / 화장품 브랜드 개발 / 화장품 OEM, ODM 생산
●주요 생산 제품 : Re20 / Re20링글 / Re20옴므 / 이디엄옴므 / 원스크림 / OS실크 / 티버민 / 클렌징폼 등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연암읍금로 237-29 ●대표번호 : 041-912-0920 ●소비자상담번호 : 080-020-2500 ●홈페이지 : www.omarsharif-cosmetic.co.kr

손병환 회장 '사고방식 전환' 특명 "고객 중심 통합플랫폼 구축"

**농협 DT 추진최고협의회
전 계열사 애자일 조직 신설
앱 고도화 등 디지털 전환 속도**

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우를 앞으로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손 회장은 고객 이 와서 머물고 싶은 통합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 올원뱅크를 계열사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관문으로 만들어 고객이 손쉽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농협금융은 이를 위해 올원뱅크를 중심으로 계열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앱)도 정비할 계획이다. 은행은 현재 6개 banking 앱을 개인·기업용 스마트뱅킹 2개만 남기고 통합한다.

이상래 디지털금융부문장(CDO)이 주관하는 DT추진협의회에 디지털 마케팅분과를 신설한다. 마케터 관련 계열사 간 협업, 연계 마케팅, 외부 제휴 등을 금융지주 차원에서 직접 챙기도록 했다. 농협금융 DT성과지표도 계열사의 DT추진 성과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위주로 개편한다.

서지연 기자 sjy@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모기지' 도입

금융당국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최장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초장기 정책모기지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령 연 2.5% 이자율로 30년 만기의 3억 원 대출을 받은 경우 월 상환금액이 119만 원이지만,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월 상환액이 99만 원으로 16.1% 감소한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위한 전·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청년층 전·월세 공급은 한도가 4조 100억 원으로 20년 말 기준 3조 6000억 원이 지원돼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 한도를 폐지하고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또 1인당 한도를 기존 보증금 7000만 원, 월 50만 원 이하에서 상향 검토할 예정이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된다.

올 상반기 안으로는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한다.

곽진산 기자 jinsan@

LG 3조 요구에 SK 6000억 '배상금 평행선' 좁히나

韓·美 정재계, LG·SK 배터리 합의 촉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사가 합의가 관건으로 남았다. 배상금에 대한 양사의 입장 차이가 2조 원 수준에 달하는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각자 제시한 배상금의 격차는 약 2조 원이나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조5000억~3조 원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적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5000~6000억 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위 소송까지 이어지면서도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경도 이런 차이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을 지렛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합의를 위한 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최종판결 직후 합의의 성패를 SK이노베이션의 공으로 돌리며 공세를 지속했다.

ITC의 최종판결 이후 연 콘퍼런스콜에

美 조지아 주지사 "지역경제 타격" 바이든에 ITC 거부권 행사 요구

SK 계약한 포드 "합의해야 이익" 폭스바겐은 美에 4년 유예 요청

정세균 총리 "빨리 해결했으면" 배상금 격차 커 합의 쉽지 않아

서 "(배상에 대한 협상은) 작년부터 최근 까지 여러 차례 진행됐고 오늘 최종결정이 나왔다"라며 "조간간 협상 논의가 시작돼서 진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합의의 위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LG 측은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손해배

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지는 전적으로 SK의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반면, ITC 소송에서 패한 SK이노베이션은 마지막 절차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비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분쟁에서 Barack Obama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애플의 손을 들었다.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판결 이후 입장을 내고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하여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켈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도 ITC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ITC 결정 때문에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

의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조지아주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이 들어설 지역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SK이노베이션이 합의에 대한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왔지만, 이번 판결로 시간은 LG에너지솔루션의 것이 됐다"며 "바이든의 결정만을 기다리기에 SK이노베이션의 여유가 많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에서도 잇따라 양사의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수요처인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는 ITC 선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인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라며 합의를 재촉했다.

또 다른 수요처인 독일 폭스바겐도 "한국의 두 배터리 공급업체의 분쟁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최소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국내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너무 법적인 소송만 하지 말고 좀 빨리 '세틀(해

결)'을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등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각자 제시한 배상금 격차가 최대 2조 원에 달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 긍정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초기 패소'를 결정했던 예비심결을 "인용(affirm)한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SK이노베이션에 앞으로 10년 동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배터리 제품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배제 명령(LEO)과 미국 내에서 배터리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등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중징명령(CDO)을 내렸다.

단, 포드와 폭스바겐 등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은 4년간,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은 2년간 수입할 수 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 'QLED TV' 게이밍 성능 강화

입력 지연 줄이고 명암비 최적화

삼성전자가 2021년 QLED TV 전 제품군에 걸쳐 게임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AMD와의 협업을 통해 50형부터 85형에 이르는 네오 QLED TV(사진) 전 제품군에 업계 최초로 AMD의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FreeSync Premium Pro)' 기능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AMD의 '프리싱크' 기술은 게임 콘솔이나 PC 등 다양한 게임 콘텐츠가 TV 등의 디스플레이로 전달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지연이나 화면 끊김 현상, 화면 왜곡 등을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도입한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는 기존 프리싱크 기능에 명암비 최적화 기술인 HDR(High Dynamic Range) 기능을 추가해 화면 끊김 없는 부드러운 게임 영상을 HDR 화질로 더욱더 선명하게 플레이 할 수 있게 만든 기능이다. AMD의 '프리싱크' 기술은 게임 콘솔에도 적용돼 있어 TV로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게임들이 진화를 거듭함에 따라 고

화질 게이밍 경험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도 많이 늘어났으며, 이런 추세에 맞춰 HDR을 적용한 다양한 게임들도 시장에 속속 출시되고 있다.

국내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의 네오 QLED에는 앞서 설명한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기술은 물론 다양한 게이밍 관련 기능들도 탑재됐다.

△색 재현력 100%와 12비트 백라이트 컨트롤로 어두운 영상 디테일과 정확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며 △영상 신호를 처리해 화면에 내보내는 속도인 인풋 렉 최단 시간 적용(5.8ms) △업계 최초 와이드 게임 뷰(Wide Game View)를 통해 21:9, 32:9 등으로 화면 조절 △업계 최초 게임 바(Game Bar) 기능 등이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2018년 오토 게임 모드를 TV에 도입한 뒤 게이밍 TV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그 결과,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게이밍 부문 CES 혁신상을 받은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삼성전자는 TV 게이밍 기술 강화를 위해 수시로 사내 토론을 통해 게임 애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상품기획에도 반영하고 있다. 이번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기술 탑재도 사내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노우리 기자 we1228@

대세는 방역 주총 '전자투표' 확 늘어난다

지난해 삼성전자 도입 후 재계 확산 LG 계열사 13곳·현대차 12곳 시행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역'이 주주총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투표제가 대거 도입되면서 지난해보다는 분산된 주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내달 국내 주요기업들이 일제히 주주총회를 시작한다. 올해도 기업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총장 운영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전자투표제 도입이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자투표제도

입하면서 재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주주들에게 가급적 전자투표로 주총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총장을 외부 장소에 2000석 규모로 마련했다.

올해 LG그룹은 13개 상장 계열사 모두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LG 계열사 가운데에서는 LG화학, 로보스타가 지난해 먼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LG상사, 지투알, 실리콘웍스 등 11개 상장 계열사들이 추가됐다.

현대차그룹도 전자투표제 도입을 확대

했다. 현대차를 비롯해 현대글로벌비스, 현대비즈니스, 현대차증권 등 12개 상장 계열사들도 전자투표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 밖에 SK, 신세계, CJ, 포스코, 현대백화점, 롯데 등 여러 그룹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기업들은 전자투표 도입과 함께 주총장 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처럼 주총장에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주총 당일 주주 외 외부인의 사업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매년 주주 편의를 위해 제공하던 전시장 투어와 본사·주총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태성 기자 tskwon@

조선 LNG선 수주 확대에 철강업계 화석

극저온 연료탱크 수주 기회

한국 조선업계가 LNG선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철강업체에도 기회가 될 전망이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및 LNG 추진선 시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영국 조선해양산업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처에 따르면 지난달 발주된 대형 LNG 운반선(14만㎡ 이상) 2척을 우리나라에서 모두 수주했다.

국내 조선사들이 LNG선 시장에서 활약

하면서 철강업체에서도 소재 개발 및 납품이 이어지고 있다. LNG 추진선의 연료탱크는 저장시설 내부를 영하 165도 아래로 유지해야 하며 극저온에서도 연료탱크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스코는 1993년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후, 최근에는 우리나라 조선 3사와 함께 LNG 탱크 기술 개발에 협력해 왔다. 현대제철도 개발 및 R&D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월 안정적인 품질 수준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의 주요 9대

선급인증을 모두 획득해 수주 준비를 마쳤다. 향후 LNG 플랜트와 LNG 터미널에 쓰이는 옥상용 저장탱크 수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친환경 기조가 강해지면서 LNG 운반을 위한 LNG선 및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 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정기대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LNG 연료 추진선 수요는 향후 급증하여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2500~3000척 발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주혜 기자 winjh@

'정유사 유일 흑자' 에쓰오일, 실적 개선 본격화

에쓰오일(S-OIL)이 대규모 투자에 따른 효과를 내고 있다. 14일 에쓰오일(S-OIL)은 대규모 투자로 확보한 최첨단 정유·석유화학 시설을 지난해 4분기 완전히 가동하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2018년 말 신규 고도화시설(RUC&ODC)을 가동했다. 잔사유 고도화시설(RUC)은 원유보다 값싼 중질의 잔사유를 원료로 휘발유와 고급 휘발

유용 첨가제(MTBE),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프로필렌,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3분기 두 달간 RUC와 ODC 시설을 정기보수하고 4분기에는 고도화시설을 완전히 가동했다. 국내 정유사들이 4분기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낮춘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4분기 매출 4조 2803억 원, 영업이익 931억 원을 거두며

흑자 전환했다. 4분기 기준 국내 정유 4사 가운데 유일한 흑자다.

에쓰오일은 올해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고도화시설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데다, 주요 생산설비가 지난해 정기보수를 마쳐 올해는 가동 중단 없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쓰오일의 석유화학 주력 제품인 산화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등 올레핀 제품들은 각국의 소비 진작 정책으로 자동차, 가전, 포장재 섹터 등의 수요가 회복하면서 강세를 보인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중소·벤처 기관들 “새 수장과 함께 힘찬 도약”

14대 벤처캐피탈협회장에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노비즈협’ 임병훈 24일 ‘벤처기업협’ 강삼권 25일 취임 소공연, 선관위 구성... 중기연구원·공영쇼핑도 공채 계획

신임 장관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계 관련 기관과 협단체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 5일 취임한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에 이어 중기부 유관 협회와 단체장, 산하 기관장도 대거 바뀐다. 임기가 끝나거나 인사이동으로 수장 자리가 빈 곳이 많아 서다. 특히 이들 단체의 경우 산적한 현안이 많은 곳이 대부분이라, 신임 회장·대표이사에 대한 기대감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몇 개 단체는 새로운 수장을 맞이할 채

비를 마쳤다.

이노비즈협회는 임병훈 텔스타호텔 대표를 10대 회장으로 단독 추대하고 24일 정기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한다. 또한, 벤처기업협회는 강삼권 포인트모바일 대표를 단독 후보로 추대했다. 17일 정기 이사회를 거쳐 25일 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임명하게 된다.

두 협회 모두 올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올해부터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인증기관으로 역할을 시작한다. 사실상 사무국 역할을 진행해야 하는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지성배 벤처캐피탈협회장

만급 협회의 중요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노비즈협회 역시 올해 이노비즈 20주년을 맞아 혁신을 예고한 바 있다. 이노비즈 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평가제도도 스케일업 관점에서 개편해 국제 표준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회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벤처캐피탈협회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4대회장으로 선임했다.

새 수장을 뽑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곳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4대 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전임 회장이 탄핵을 당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던 데다 올해부터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소상공인 대표 단체로서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전임 이병헌 원장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법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어 신임 원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따라서 연구원은 이른 시일 내에 이

사회를 열고 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이사회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6월 법정기관 전환을 앞둔 만큼 그 전에 공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쇼핑도 최창희 대표이사가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대표 자리를 채워야 한다. 공영쇼핑은 중기부,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주주사들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대표를 뽑는다. 지난해에 이어 흑자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대표 자리의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아직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반려동물 보험에 재테크까지... ‘펫금융 플랫폼’ 새로운 길 개척

인터뷰

심준원 펫핀스 대표



“반려동물이 자신의 수명을 다할 때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주는 비용이 12%에 불과하다. 다양한 이유로 10마리 중 9마리는 죽기 전 주인의 곁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의미다. ‘생로병사’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입양하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펫핀스는 2019년 9월에 설립된 반려동물 전문 생활금융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각종 펫금융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 가입, 보험금 청구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법인 설립 후 약 1년은 보험사마다 각기 다른 보험가입 과정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표준화하는데 보냈다.

심준원(사진)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펫보험은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반려동물의 생애 필요한 의료 및 편의 서비스를 품종과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애완동물 보험 가입률은 0.3% 수준에 불과하다. 스웨덴(40%), 영국(20%), 미국(10%), 일

국내 펫보험 가입률 0.3% 불과 ‘질병코드 표준화’ 문제해결 시급 애완동물 상조·맹견보험 서비스 보험사와 다양한 상품 출시 준비

본(9%)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저조하다. 이 차이는 ‘질병코드 표준화’ 유무에서 발생한다.

그는 “펫보험이 활성화된 나라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질병코드’ 유무인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진료항목’이 표준화될 수 있다”며 “이 바탕 위에서 동물 의료의 선진적인 발전이 가

능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격차 완화와 공시제(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에서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존재하며 손해율은 증가하고 동시에 보험료도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질병 코드화가 되면 애완동물 보험 시장과 동물 의료 시장이 3-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반려동물의 금융 생태계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애완동물 상조와 맹견보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영역을 확장했다. 동물보험 개정으로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주인들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상반기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 대표는 “논의 단계에 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을 내고 예·적금과 펀드, 대출, 재테크까지 가능한 ‘비보험 펫금융’ 플랫폼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또 반려동물 식별 기술인 ‘복합인증’을 통한 장기금융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기업전용솔루션 ‘U+ SD-WAN’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LG U+, 기업전용 회선 솔루션 ‘업그레이드’

‘U+ SD-WAN’ 출시... 영상회의·클라우드 품질 향상

LG유플러스는 IT 가상화 전문기업 VM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실시간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클라우드 접속 등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전용 솔루션 ‘U+ SD-WAN’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U+SD-WAN은 기업에서 업무용 회선에 SD WAN 플랫폼과 전용 단말 장비를 이용해 회선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솔루션이다. 기업고객은 기존 업무통신망을 바꿀 필요 없이 SD-WAN 플랫폼을 활용해 회선서비스 품질을 올리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전용회선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영상 회의나 클라우드 등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앙에서 기업전용망을 사용하는 단말을 원격으로 자동 제어하고 구축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솔루션은 일반적인 네트워크, 보안 장비와는 달리 데이터영역과 제어영역을 분리해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서비스를 유지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U+ SD-WAN의 국내외 상용 고객 대상 서비스 실증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품질 향상과 네트워크 환경의 효율적 운영을 검증했다.

구성철 LG유플러스 유선 사업 담당은 “고객 회선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품질 개선은 물론 다양한 장점이 있는 U+ SD-WAN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며 “LG유플러스는 국내외 모든 기업고객이 언택트 환경에 최적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과기부, 과학인재 양성사업에 145억 투입

‘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단순계산보다 문제해결 과정 학습 강화

잠재력 있는 인재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과학 영재교육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과학 영재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영재교육 수혜대상을 확산하기 위해 과학 영재양성사업이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 영재교육 수혜대상 다양화를 위해 총 145억 원을 투자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과학 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개발해 시행한다. 상반기 내로 인증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등에 적용하여 개선사항을 환류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질을 높인다. 필요하다면 지역 수·과학 학습지원기능 강화 등 역할 변모를 통해 과학 영재교육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선행학습과 단순계산을 지양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도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선발 및 교수·학습 과정에서 서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한다.

특히 영재교육 확산을 위해 과학 영재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비법을 활용하여 ‘명품 수·과학 온라인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희망하는 학생은 누

구나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코로나 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변화 대응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며, 이의 토대는 수·과학에 기초한 논리적 사고능력과 과학기술 문해력”이라며 “과학 영재양성사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력을 지닌 과학영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버팀목자금 온라인신청 어렵다면 예약 방문하세요”

26일까지 신청 접수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자 중 온라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현장 신청을 받는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약 후 방문 신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문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약 후 방문할 현장접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다.

현재 행정 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

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 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한정해 예외적으로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도 예약 후 방문하면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할 일시와 현장접수처를 예약해야 한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백화점 위에 편의점... 코로나發 첫 매출 역전

패션 비중 높은 백화점, 온라인쇼핑에 고객 뺏기며 타격
점포수 늘어난 편의점, 재난지원금 효과·담배 매출 증가

지난해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편의점 3사 매출이 백화점 '빅3' 매출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여파에 패션 매출 비중이 높은 백화점이 타격을 입은 반면 편의점은 점포 수를 확대하며 담배 매출까지 늘어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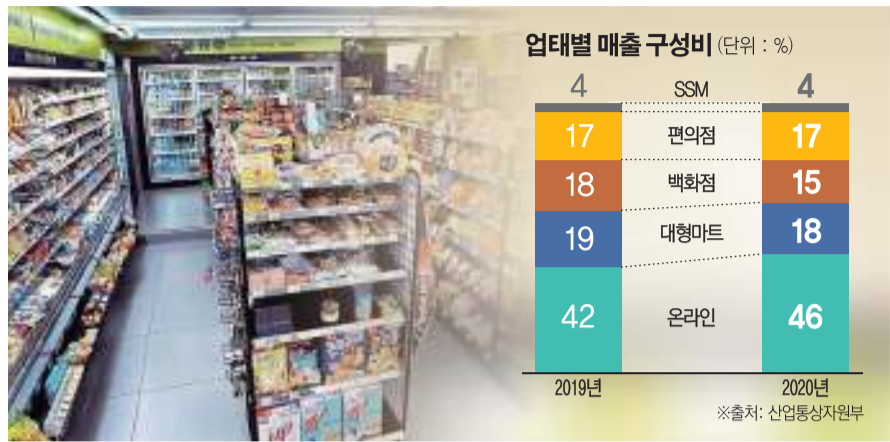
어깨를 나란히 했던 백화점은 지난해 15%로 쪼그라들었다. 대형마트도 18%로 1%p(포인트) 내렸다. 다만, 편의점 매출 비중은 직전 연도와 같은 17%로 변화가 없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계 매출 중 온라인 매출 비중은 46%로 전년의 42%에 비해 4%p(포인트) 늘었다. 이에 반해 오프라인 유통사의 매출 비중은 58.6%에서 53.5%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편의점 3사의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백화점 3사 매출을 눌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는 백화점은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곳을 기준으로 한다. 편의점은 씨유(CU)와 GS25, 세븐일레븐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에 즉시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문화가 정착되고, 온라인과 비대면 소비 확산 추세에 따라 온라인 매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와 대중이용시설 기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주춤 가운데 편의점이 선풍한 것으로 풀이된다. 먹거리를 주로 취급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비해 의류·패션 집화 비중이 높은 백화점의 경우 이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에 고객을 뺏긴 이유도 크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여성의류와 남성 의류, 잡화 등 백화점의 비식품 매출 비중은 86%에 달한다. 이 영향으로 백화점의 작년 매출은 2019년에 비해 9.8% 주저앉았다.

실제 롯데쇼핑의 백화점 부문 매출은 지난해 2조6550억 원으로 15.2% 줄었고, 현대백화점의 백화점 부문 매출은 전년보다 9.5% 감소한 1조7504억 원의 순매출을 기록했다.

업자가 어려움을 겪으며 음식점과 카페 등을 폐업하는 대신 편의점 개업으로 갈아타는 이들이 늘면서 매출을 방어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편의점 3사의 점포 수는 총 3만9962개로 2019년 말에 비해 2151개 늘었다. 이는 2019년 전체 증가치 2135개보다 높다.

하늘길이 끊기고 면세점 이용이 어려워지며 담배 수요가 몰린 부분도 있다. 지난해 편의점 매출은 2.4% 늘어났는데 이중 담배 매출은 4.9% 증가했다. 2019년

3.6%에 비해 1.4%p(포인트) 높은 수치로 전체 카테고리 중 신장률이 가장 높다. 지난해 4월부터는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원인이 크다.

이에 따라 편의점 매출도 좋았다.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6조18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편의점 GS25의 지난해 연매출은 6조 9715억 원으로 1.7% 올랐다.

다만 내실까지 받쳐준 것은 아니다. 담배의 경우 대표적인 저마진 상품으로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담배의 판매 마진은 통상 9% 내외에 불과해 과자나 라면, 주류 등의 마진 30~40%에 비해 낮다. 여기에 편의점 오픈에 따른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CU의 영업이익은 17.5% 떨어졌고, GS25도 10.6% 뒷걸음질쳤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담배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유통가, 등교수업 확대 '설레는 신학기'

유통업계가 신학기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달 29일 교육부가 올해 개학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발표한 후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롯데백화점 아동 상품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급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 상품군 매출은 개학 시기인 2~3월, 9~10월 매출 구성비가 1년 중 가장 높지만 50%가 넘는 큰 폭의 매출 증가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명절 보복소비와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 의류·가방 등 수요 늘어
IT가전도 대대적 할인 행사



사은행사로 25일까지 신학기 가방, 봄 신상 의류 등 패션 및 잡화 단일 브랜드에서 당일 20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백화점 앱을 통해 7.5%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신학기 온라인 행사로 롯데백화점 라이브 방송 채널 '100LIVE'에서는 '신학기 특집전'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학기 특수를 노리는 유통업계가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잡는다.

롯데백화점은 3월 4일까지 올 봄 신학기 테마를 'Fresh New Start'로 정하고 봄 신학기 행사 상품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온/오프라인에서 선보인다. 해당 기간동안 전점 입점된 노스페이스키즈와 헤지스 키즈에서는 책가방 세트 할인 행사한다. 노스페이스키즈는 키즈와이드 프로텍션 스쿨백을 10% 할인해 14만 3100원에 판매하고 헤지스키즈는 30% 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9000원에 판매하며, 책상과 함께 놓을 수 있는 보조 책상인 '데코라인 카운티 보조 책상' 역시 30%할인된 4만 9000원에 선보인다. 원격 수업을 위한 디지털 가전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기획해 애플 아이패드 전품목과 맥북 전품목을 A스토어 입점 점포에 한해 행사카드 결제 시 5% 할인 판매한다.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는 14일까지 삼성 전자 갤럭시북, LG전자 그램 신모델 할인 행사를 한다.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할인 행사도 있다. 19일부터 28일까지 MS, 애플, 레노버 등 행사 모델을 특별 기획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2월 한달 이벤트도 열어 개인 SNS에 가지고 있는 IT 가전과 갖고 싶은 IT가전을 이유와 함께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IT 컴은 패키지'를 증정한다.

쿠팡은 14일까지 '신학기 아카데미 위크'를 연다.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들을 한자리에 모아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레노버, ASUS, HP, 델,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대표 노트북 브랜드가 대상이다. 남주현 기자 jooh@



종합비타민으로 날리는 명절증후군
롯데백화점은 설 명절 기간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명절증후군 극복을 위해 종합비타민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21일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GNC의 올인원(엑상+정제) 타입의 종합비타민 '올리온 울트라 비타 액션(30병)·세노비스의 '프로폴리스 기프트 세트'(프로폴리스 100캡슐, 스프레이 25ml)를 판매한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설 명절 기간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명절증후군 극복을 위해 종합비타민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21일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GNC의 올인원(엑상+정제) 타입의 종합비타민 '올리온 울트라 비타 액션(30병)·세노비스의 '프로폴리스 기프트 세트'(프로폴리스 100캡슐, 스프레이 25ml)를 판매한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SSG닷컴 "코덕 잡아라" 폭탄 세일

뷰티 전문관 '먼데이 문' 1주년
화장품 16만 중 최대 70% 할인

SSG닷컴이 뷰티 전문관 '먼데이 문'의 오픈 1주년을 맞아 화장품 16만 종을 최대 70% 할인에 나선다.

SSG닷컴은 '먼데이 문(MONDAY MOON)' 오픈 1주년 행사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간 대규모 할인행사를 열고, 화장품 특가 판매 라이브방송도 진행한다. 먼데이 문은 SSG닷컴이 기존 뷰티 카테고리 확장을 위해 개편하면서 지난해 2월 첫 선을 보였다. 먼데이 문 전문관으로 개편 이후 지난 1년 간 매출은 40%, 주문 건수는 29% 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기간 동안 SSG닷컴은 '입생로랑 뷰티', '랑콤', '에스티 로더', 'SK-II', '바비 브라운', '케라스타즈' 등 럭셔리 브랜드부터 '틀리오', '3CE' 등 대중적인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뷰티 전문관 먼데이 문에 입점한 뷰티 상품 총 16만 종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코덕(코스메틱 덕후)' 사로잡기에 나선다. SSG닷컴은 대표적으로 2월 중순 출시되는 '러쉬 바디스프레이' 신제품과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미니'를 이번 행사를 통해 처음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메이블린', '베네피트', '마녀공장' 등 국내외 유명 뷰티 브랜드가 이번 행사를 위해 단독으로 준비한 상품을 '1+1' 구성 및 최대 6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18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입생로랑 뷰티 속라이브'에는 레페리 소속으로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크리에이터 '레오제이(Leo.J)'가 출연해 화제를 모을 전망이다. 레오제이는 이날 백화점 쿠폰 판매 연속 1위 제품인 '영크르 드 보 쿠폰'과 입생로랑 뷰티의 신제품 '영크르 드 보 마블 에센스 크림 팩트'를 비교해 선보이는 한편 메이크업 꿀팁도 소개할 계획이다. 남주현 기자 jooh@

'단골 고객'을 보여주는 뷰티 상품 재구매율도 42%에서 50%로 8%포인트 상승했으며, 취급하는 상품도 오픈 당시 10만 종에서 16만 종으로 60% 확대됐다. SSG닷컴은 '뷰티 전문관 오픈 1주년' 타이틀에 걸맞게 온라인 최초 공개 상품과 단독 구성 상품, 타임딜, 추가 할인쿠폰 발급 등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향수, 미용기기 등 뷰티 카테고리 전 영역에서 선정한 인기 상품을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집콕·한류'의 힘... 라면 수출액 6억 달러 '신기록'

지난해 한국 라면 수출액이 6억 달러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영화 '기생충' 등으로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진데다 코로나19로 인해 간편식이 대세로 떠오르면서다.

299억 원), 필리핀(2400만 달러, 26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식품업체들이 해외에 공장을 두고 현지에서 직접 라면을 생산·판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라면의 글로벌 판매액은 이보다 훨씬 크다. 농심의 경우 미국과 중국에 공장을 두고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을 생산해 판매한다. 팔도는 러시아와 베트남에서 라면을 생산·판매한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6억362만 달러로 전년보다 29.3% 늘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1086.3원)로 환산하면 6700억 원 수준이다. 같은해 라면 수입액은 468만 달러(51억8000만 원)로 수출액이 수입액의 약 130배인 셈이다.

실제 농심의 경우 작년 라면 수출액은 3억4950만 달러(약 3869억 원)인데 미국법인 매출이 3억2600만 달러(약 3609억 원), 중국법인인 3억1500만 달러(약 3487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농심의 글로벌 라면 판매액은 9억 9050만 달러로 1조 원을 넘는 셈이다.

국가별로 중국 수출액이 1억5000만 달러(1660억 원)로 전체의 24.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미국(8200만 달러, 약 908억 원)과 일본(5500만 달러, 609억 원), 태국(2700만 달러,

신세계푸드의 '대박라면'도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 1000만 개를 돌파해 전년 대비(2019년 305만 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라면 업체들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농심은 해외 사업 급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2조6398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12.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3.4% 성장한 1603억 원을 기록했다.

'진라면'으로 유명한 오뚜기도 작년 영업이익이 33.8% 증가한 1984억 원을 기록했다.

삼양식품도 불닭 시리즈와 미국 수출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주현 기자 jooh@

“코로나 뚫고 더 높이”… 상장사 ‘호실적’ 자신감

실적 가이던스 밝힌 40곳 중 36곳 “매출·수출 늘어날 것”
 현대에너지솔루션 49.7% 한라홀딩스 36.8% 성장 전망
 수출기업 중심 ‘실적 청신호’…건설·조선사도 반등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더디지만, 국내 상장사들은 올해도 실적 성장의지를 다지고 있다.
 14일 이투데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2021년 실적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전년과 비교 가능한 기업은 40곳(코스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90%(36곳)가 올해 매출액 또는 수주를 2020년보다 늘려 잡았다. 현대에너지솔루션(49.7%), 한라홀딩스(36.8%), 솔루스첨단소재(36.5%), LG화학(24.1%), 삼성엔지니어링(1.1%) 등이다.

올해 전망치가 전년 성과에 미치지 못한 곳은 4곳에 그쳤다. 격차는 1% 내의 수준으로 사실상 지난해 실적 또는 판매량을 이어간다는 관측이다. 현대제철(-1.7%), 한라(-0.8%), 한국항공우주(-0.2%)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수출 중심 상장사 위주로 청신호가 켜졌다. 건설·기계·운수장비·전기·전자 등 소속 상장사들이 대표적이다. 각국 경기부양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그린뉴딜 업종도 주목받는다.
 가이던스를 낸 전기전자주(4곳)는 올해 평균 26.2% 매출 성장을 기대했다. 지난해 태양광 모듈 CAPA를 개선한 현대에

가이던스를 통해 본 2021년 주요 매출액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연결 기준)

종목	2020년 매출액	2021년 전망치	증감률
현대에너지솔루션	3944	5904	49.7%
한라홀딩스	7354	10059	36.8%
솔루스첨단소재	2902	3960	36.5%
LG화학	30조575	37조3000	24.1%
대우건설	8조1367	9조8000	20.4%
두산퓨얼셀(별도)	4618	5264	14%
현대건설	16조9709	18조7000	10.2%
포스코	57조7928	59조3956	2.8%
삼성엔지니어링	6조7251	6조8000	1.1%
한국항공우주	2조8321	2조8261	-0.2%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너지솔루션(49.7%)이 가장 컸다. 솔루스첨단소재와 두산퓨얼셀도 각각 36.5%, 14.0% 매출 신장을 전망했다.
 주요 건설사도 반등을 자신했다. 지난해 늘어난 분양물량을 바탕으로 국내 주택

실적을 개선하고 수익성도 쟁긴다는 구상이다. 대림건설과 대우건설이 각각 20%를 웃도는 성장률을 전망했다. 지난해 해외 건설경기 부진에 난항을 겪은 현대건설도 매출액 전망치를 10.2% 올렸다.
 조선업도 순항 중이다. 올해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연초 글로벌 선사들이 잇따라 선박을 발주하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주 절벽을 경험한 작년 상반기와 대조적이다.
 조선 3사도 올해 수주 목표량을 늘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77억 달러를 목표로 세웠다. 삼성중공업도 전년 대비 42% 증가한 78억 달러를 목표 수주액으로 제시했다. 한국조선해양도 지난해 목표치인 110억 달러보다 39억 달러 늘어난 149억 달러로 목표치를 잡았다.
 현대·기아차도 작년 글로벌 판매 실적 대비 11.5% 증가한 목표로 시장에 나선

다. 올해 세계 시장에서 708만2000대(현대차 416만대, 기아 292만2000대)를 판매하겠다는 포부다.
 한편, 수출 회복 전망도 실적 개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마크로팀장은 “1월 수출은 12월에 이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개선이 뚜렷했다. 15대 주요 수출품 중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면서 “백신 보급과 경제재개 기대로 하반기 경제 회복 기대감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상장사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시장 불확실성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전망 발표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시기 100곳 넘게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가이던스 제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예금 금리보다 쏠쏠한 ‘꿀배당’ 기업 어디?

올해 결산배당을 공시한 코스피 상위 10개 기업 중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시가배당률을 기록한 기업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성장성과 안정성, 최저 수익률 보장 등 삼박자가 고루 갖춘 기업들로 평가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결산 배당을 공시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배당률을 보면 삼성전자(2.6%)와 현대차(1.6%), 기아(1.6%) 등 3개 기업만이 은행권 최고 정기예금 금리 1.3%를 상회했다.
 이들 기업은 시총 최상위권인 만큼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배당금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현재 주가로 매수해도 최소 은행 금리보다 이익인 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실적 상승뿐 아니라 성장성 면에서도 시가총액 1위의 면모를 보여줬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은행 이자보다 높은 배당까지

더하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이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차량용 반도체 등 글로벌 비메모리 서플라이 체인에서 부품 공급 부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조3000억 원으로 2021년의 4분기 중에 바닥일 가능성이 크고, 부품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팽팽한

의 단기 주가는 하락했지만, 경쟁력과 밸류에이션(기초체력 대비 주가 수준)을 고려하면 중장기 주가는 회복,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테슬라 등 IT 기업의 자율주행전기자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자동차 시장 진출 전략이 노출됐다”며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소수의 OEM(주문자상표부착 업체)만이 해당 협업이 가능한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기예금보다 시가배당률이 낮은 기업은 SK하이닉스 1.0%, LG화학 1.2%, 네이버 0.1%, 삼성SDI 0.2% 등이었다. 나머지 시총 상위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이후 배당을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셀트리온과 카카오는 결산 배당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시가 배당률이 1%에 못 미친 기업들은 신세계 0.5%, CJ제일제당 1.0%, 엔씨소프트 1.0%, 더블유게임즈 0.6%, LG생활건강 0.7% 등이었다.

삼성전자 2.6% ‘역대급 배당’…적극적 주주환원
 현대차·기아 나란히 1.6%로 예금 금리 웃돌아
 하이닉스 1%·네이버 0.1%…삼성SDI는 0.2%

팽파이트 기업보다 제조설비를 가진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IT기업 애플과 전기차(일명 ‘애플카’) 위탁생산 협력 중단으로 떠들썩했던 현대차와 기아는 배당 매력만으로도 투자 가치를 증명했다.
 증권가에선 애플가는 의가 중단됐음에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기술력으로 중장기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장문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현대차

김우람 기자 hura@

‘스팩株’에 꽃힌 서학개미

인수목적회사 하방지지 ‘단단’…CCIV·ACTC 대거 매입

서학개미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에 꽃혔다. 미국 증시 내 성장 단계에 있는 스팩 주식을 선점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스팩 특성상 ‘하방은 막혔지만, 상방은 열려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모양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으로서, 현지 공모주 투자가 불가능한 점도 스팩 투자 선호 요인으로 꼽힌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에는 CHURCHILL CAPITAL CORP IV(CCIV), ARCLIGHT CLEAN TRANSITION(ACTC) 등 스팩 주식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CCIV를 1억5330만 달러(한화 1697억8000만 원), ACTC는 1억3154만 달러(1456억8000만 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스팩 주식을 백지수표 회사(blank-check company)라고도 부른다. 미국 스팩 종목의 기본 가격은 10달러인데, 유망기업과 인수합병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서다.
 스팩은 유망기업과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다.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지만, 인수합병과 상관없이 일반기업 주식처럼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스팩이 인수합병에 결의하지 못해

상장폐지되더라도, 최소 규모의 투자금을 지킬 수 있어 하방 지지가 단단한 투자처로 꼽힌다.
 최근 서학개미가 대거 사들인 CCIV는 치질 캐피탈의 스팩이다.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Lucidmotors) 인수설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제2의 테슬라를 찾으려는 서학개미들이 CCIV 스팩으로 몰린 셈이다. ACTC는 전기버스 회사인 프로테라(Proterra)와 합병 상장 소식을 밝히며 주가가 두 배 가량 오르기도 했다. 역시 전기차 호재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입장에서 스팩 합병 상장을 이용하면, 기존 기업공개 과정 대비 상장 절차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가치 평가액에 대한 변동성도 낮다. 미국에서는 유튜브로도 기업 홍보가 가능해 기업공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다만 스팩 주식은 합병상장 발표 전까지 어떤 기업과 합병하는지 알기 어렵고, 합병시기도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슈에 따라 변동성도 크다.
 강대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든 스팩의 성과가 좋은 건 아니다”며 “위험성 높은 개별 스팩에 대한 투자보다는 여러 스팩, 스팩합병 기업을 보유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ETF 투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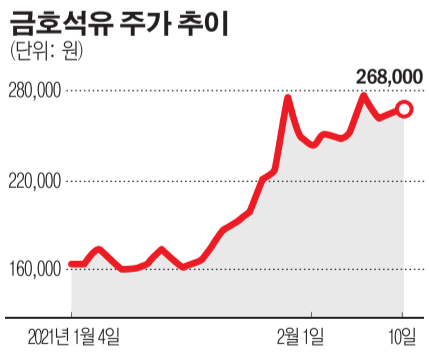
이인아 기자 ljh@

주가 90% 오른 금호석유 ‘여전히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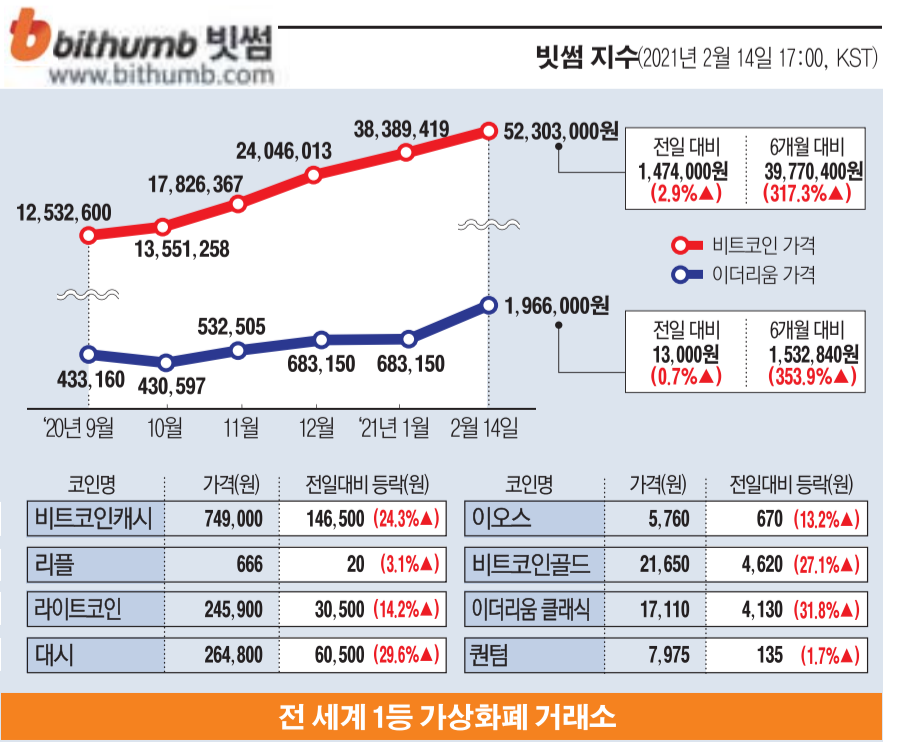
경영권 분쟁 이슈·호실적 전망…목표주가 상향 잇따라

숙부와 조카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금호석유에 대한 증권가의 주가 전망이 밝다. 연초대비 이미 주가가 90.1% 올랐지만, 증권사들은 올해 경영권 분쟁과 실적 호조로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의 주가는 지난해 말 14만5000원에서 이달 들어 최고 장가가 27만6500원(5일)까지 올랐다. 이 기간 상승률은 무려 90.1%에 이른다.
 금호석유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이면서부터다. 지난달 말 박찬구 금호석유 회장의 조카이자 개인 최대주주(10%)인 박철완 상무는 금호석유측에 배

당 확대와 이사 교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 제안서를 발송했다. 박 상무는 또 “기존 대표 보고자(박 회장)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고 공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영권 분쟁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경영권 분쟁은 기업가치의 개선 요인이며, 경영권 분쟁이 표 대결로 이어질 경우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경영권 분쟁은 주주입장에서는 배당 확대 등을 통한 기업가치 개선 요인이기에 긍정적 요소”라면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자극적 이슈에 함몰되어 실익 없는 단타를 하는 것보다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안내하는 편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욱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사들은 금호석유가 경영권 분쟁 이슈와 더불어 올해 실적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목표주가를 크게 높여 잡았다.
 하나금융투자는 기존 33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조정했고 △대신증권(17만5000원→35만 원) △삼성증권(29만 원→33만 원) △이베스트투자증권(18만6000원→36만 원) △KB증권(14만6000원→32만5000원) 등도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위헌논란에도 '2·4대책' 입법 속도...당정 '마이웨이'

'재산권 침해 논란' 진화 나섰지만...진통 예상

정부·여당이 '2·4 대책' 관련 후속 입법 작업 '속도전'에 나섰다. 당정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업자 위치는 밝히지 않은 채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 매입자에게는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대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2·4 대책 발표 직후부터 후속법안 통과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재산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방송 인터뷰에서 "공공 정비사업은 주민이 먼저 정부에 사업을 제안한 뒤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소유자에게 현금 보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입주권 미부여 문제에 대해선 "정비사업 발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입주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시혜적인 것이고, 결국 공공의 선택 문제"라며 "현금보상안을 입법한 뒤 발표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부진정 소급입법' (이미 과거에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효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하는 입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국토부와 2·4 대책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입주권 미부여와 현금청산이 문제 될

'현금청산, 문제없다'는 변창흠 장관 설 연휴에도 방송서 "정당한 조치" 與, 대책 발표이후 입법 가속 페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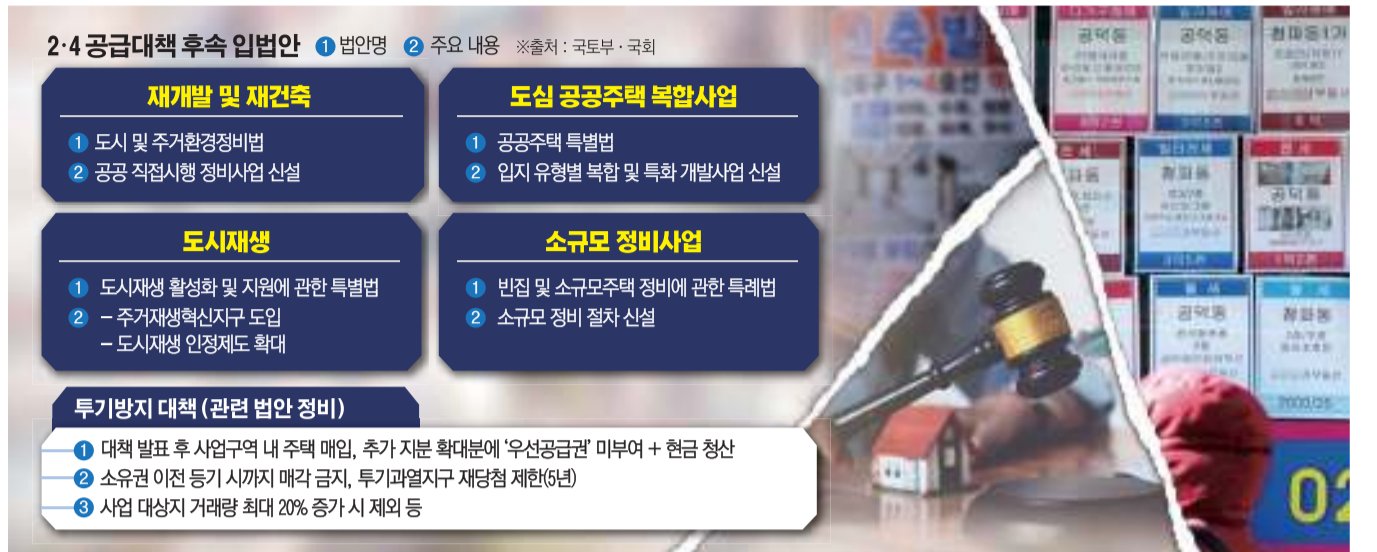
野·전문가 "속도조절 필요" 지적 "충분한 속의 거쳐 정책 마련해야"

게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 직후 조응천 국회 국토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위헌 논란에 대해) 국토부가 사전 자문을 받았고 현금청산을 적절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이를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완료 후 공급 계획이 실행돼야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므로 (입법은)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 후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은 대책 발표 후 입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2·4 대책 발표 후 나온 만인 8일 노용래 민주당 의원은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표했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공공자가주택' 방식 중 하나다. 정부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최대 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개념으로 변 장관이 학사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식 중 하나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월세 개념의 토지 임대료를 LH에 낸다. 공공자가주택은 정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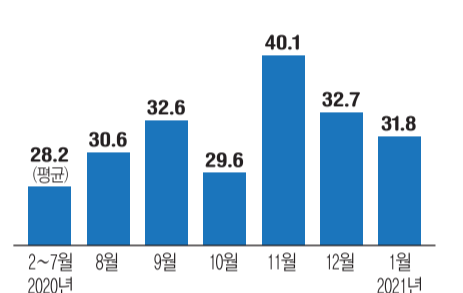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현금청산과 입주권 미부여 조항은 발의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9일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사권을 독점하고 자하는 욕심을 버리고 민간의 주택 공급과 주택 거래를 옥죄는 규제를 즉각 개선·완화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2·4 대책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데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청산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 역시 "정부와 여당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련 법안 공청회 등을 진행해 충분한 속의를 거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전세' 급증 월세 부담 가중...한숨 깊어진 서민

작년 8월~올 1월 비중 32.9% 직전 6개월보다 4.7%p 상승 전셋값 뛰어 임대료 큰 폭 올라

전체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 비중 (단위 : %) ※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후 전셋값이 급증하면서 반전세 임대료도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월세를 깬 '반전세' 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르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실정이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를 깬 반전세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지난해 2월~7월) 동안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전세에는 임대차 계약 중 순수 보증금만 있는 전세를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240개월 치 초과)가 포함된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형 반전세는 지난달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30만 원으로 거래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 수준에서 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 부담이 80만 원 치솟았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3차' 전용 84.9㎡형은 이달 8일 보증금 5억 원, 월세 80만 원에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지난해 5월에는 보증금 4억 원, 월세 40만 원에 계약된 바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보증금은 1억 원 오르고, 월세는 두 배로 뛰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보증부 월세 형태의 계약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서울 공공택지도 분양가 9억 넘어 중도금대출 못받아

서울 마지막 공공택지인 강동구 고덕강일 지구에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조감도)' 아파트 이번주 본격 분양한다. 앞서 먼저 분양한 주변 아파트 단지가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아파트에도 적지 않은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다만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 일부 평형대는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청약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4일 분양업체에 따르면 강일1지구 1블록에 들어서는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는 이번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초 1순위 등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총 780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101㎡형으로만 이뤄졌다. 지난해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 이어 고덕강일지구의 두 번째 민간 분양 단지다. 고덕강일지구에선 14개 단지 중 3개 단지만 민간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의 1순위 청약 요건은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제한된다. 공급 물량의 절반은 서울 외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시장에선 지난해 청약시장을 뜨겁게 달군 하남시감 일지구나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청약 탈락자들이 이번 분양 단지에 대거 청약통장을 단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용 85㎡ 이하 분양 물량의 15%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으로 배정됐다. 또 전용 85㎡ 초과 물량에선 절반이 추첨제 물량으로 나온다.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추첨제 물량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힐스테이트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780가구 내달 1순위 청약 돌입 3.3㎡당 2429만원...주변시세보다 낮아 수요 몰릴 듯

이트 리슈빌 강일에선 전용 85㎡ 초과 물량에서 가점 만점(84점)자가 나왔다. 최대 변수는 분양가다.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의 분양가는 3.3㎡당 2429만8000원으로 전용 84㎡형은 8억 원대 수준이나 중대형인 101㎡형은 9억 원을 넘는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3.3㎡당 2230만 원)은 전용 101㎡형도 8억 3000만~8억9990만 원 수준이어서 모든 주택형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관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높아지는 건 건설사가 그만큼 비싸게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지가(토지비)가 높아지면 분양가를 낮추기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의 분양가를 두고 불만이 속출

하고 있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원에 육박하고, 불과 두 달 전에 공급된 단지보다 3.3㎡당 200만 원이나 비싸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가격 논란에도 청약 수요는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변 시세보다는 여전히 가격이 낮아서다. 고덕·상일동 임대 신축 아파트 전용 84㎡형 매매 시세는 16억~19억 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점도 청약 수요를 몰리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3~5년까지다. 상일동 A공인 측은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되면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는 게 불가능하지만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는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gahosi@

서울 아파트 작년 초기분양률 첫 100%

청약 광풍에 사상 첫 조기 완판

서울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분양 후 3~6개월 내 계약한 비율)이 지난해 100%를 기록했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으로 초기 분양률 100.0%를 나타냈다. 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3분기 이래 첫 기록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 광풍이 불면서 HUG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년간 조기 완판(완전 판매)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분양률은 아파트 분양 초기 시점의 총 분양 가구 수 대비 계약 체결 가구 수 비율을 말한다. HUG가 주택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뒤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한 30가구 이상의 전국 민간아파트가 조사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 분양시장에선 청약 광풍이 불었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벽산빌라 가로 주택정비사업 단지)은 평균 537.1대 1로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국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지난해 2분기 97.0%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4분기에는 96.6%로 뒤를 이었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의 지난해 4분기 초기 분양률은 92.0%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서울중앙지검장〉

檢 중간 간부 인사, 이성운 친정체제 굳히나

법무부, 이번 주 단행 전망

법무부가 조만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이성운(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이 유입된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4명만 수평 이동 시키는 등 '조직 안정'에 방점을 뒀던 만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도 소폭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서울중앙지검이다. 이번에 재 신임된 이 지검장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당시 이 지검장과 마찰을 빚었던 검사들의 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중간 간부 중에서도 고참이 많은 1차장은 인사가 불가피하다. 김옥준(28기) 1차장은 윤 총장 징계처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최성필(28기) 2차장검사와 구자현(29기) 3차장검사, 형진휘(29기) 4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인사 때 발령이 나 교체 시기는 아니지만 이들 역시 윤 총장 사태 당시 이 지검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만큼 일부 이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요 사건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부장검사들의 이동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내 최선임 부장인 변필건 형사1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

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다. 변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이 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인 형사5부장,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유평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의 거취

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의 유입 여부도 눈여겨볼 만하다.

중앙지검 전입 1년을 채운 부장검사들을 대거 교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 서정민 형사

13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1부장, 김민형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이 지난해 2월 3일자로 중앙지검 발령을 받았다.

한편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박 장관과 윤 총장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2차례 회동했으나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최종 인사안을 제공하지 않아 검찰 내에 불만이 제기됐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귀경길... 봄비는 김포공항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귀경객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관광업체 1500곳 100만원 현금지원

서울시 '긴급 생존자금'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겪는 여행업·호텔업·국제회의업 사업장 1500곳에 현금 100만원씩 총 15억 원을 긴급 생존자금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행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이다. 호텔업은 고용 인원과 관계 없이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국제회의업은 30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 업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요건 확인 후 3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서울관광재단(www.sto.or.kr), 서울관광협회(www.st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지원 운영 콜센터(02-6953-7452~7456)로 문의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여행업·숙박업 등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등 금융지원금을 지난해 5450억원에서 올해 5940억원으로 늘렸다. 융자 상환유예 1000억 원과 자금(펀드) 정부출자도 450억 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숙박할인권은 지난해 100만장에서 올해 200만 장(관련 예산 516억 원)으로 확대 배포된다.

홍인석 기자 mystic@

장애 배상액 산정 기준, 근로일 축소

▶1면서 계속

이어 "이는 정규 근로자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단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더라도 월 가동일수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데 따른 임금의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수입은 불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995년부터 정부 노임단가가 폐지

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며 최근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인 현재 시점에서는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

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 통계에 맞게 월 가동일수 감축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해당 판결은 근거를 기초로 자세한 논증을 거쳐 근본적으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변경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영사
신간도서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박영사 지음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한화 첫 여성 CEO 책임감 커... 혁신에 길 있다”

W기획 인터뷰

김은희 한화역사 대표

“한화는 화약업종을 시작으로 해서 여성 인력 채용이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여성인력을 키우는 시스템을 정비해나갈 것이며, 머지않아 한화그룹에서도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배출하는 날이 올 겁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10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 채용설명회에서 여성인재 육성을 강조한 지 10년이 지난 2020년 한화그룹의 첫 여성 CEO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42세 김은희 한화역사 대표이사다. 김 대표는 ‘그룹 내 1호 여성 CEO’라는 칭호에 ‘40대 젊은 리더’라는 혁신까지 더해지면서 기존 한화그룹 CEO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꿨다.

새로운 한화 CEO 시대를 연 김 대표는 1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빠른 시기에 대표의 자리에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라며 “그룹 역사에 있어 최초의 여성 CEO가 됐다는 점에서 무한한 영광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본연의 사업에 대한 학습과 이해의 노력을 기울여 한화역사의 사업혁신 및 신규사업 추진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혁신의, 혁신에 의한, 혁신을 위한’ 여성 CEO=김 대표는 한화그룹의 ‘혁신의, 혁신에 의한, 혁신을 위한’ CEO다.

한화그룹은 김 대표를 발탁하면서 그 이유를 ‘혁신’으로 꼽았다. 작년 10월 승진 인사를 단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사업별 전문성과 전략 실행력에 강점을 지닌 대표이사를 전면 배치했다”라며 “나이와 연차에 상관없이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과감히 발탁해 중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한화갤러리아에 입사해 변화

추진팀, 경영기획팀장, 기획부문을 거쳐 다양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김 대표는 당시 수행한 프로젝트 중 VIP 기반 프리미엄 사업 강화 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혁신 사례로 꼽았다.

그는 “혼자만의 주목할 성과라기보단 경영진, 조직구성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창출한 인상적인 사례는 VIP 기반 프리미엄 사업 강화 건”이라며 “VIP 기반 프리미엄 사업 강화라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시기에 기획 임원으로 참여했다”라고 운을 뗐다.

한화갤러리아는 2019년 10월 ‘대전의 한남동’으로 불리는 대전 유성구에 ‘메종 갤러리아’를 열어 대전 지역 VIP 커뮤니티의 핵심축이자 신규 VIP 확보에 성공하며 대전 타임월드의 VIP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대전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지난해 3월 말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고메이 494 한남’을 열었다. 프리미엄 리빙과 다이나믹을 복합적으로 선보이는 ‘고메이 494 한남’은 갤러리아의 VIP 강점과 지향점이 집약된 공간이라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고메이494 한남’은 용산구의 잠재적 VIP 고객까지 확대, 강남 중심의 VIP 고객 확보에서 용산, 강북 지역까지 확대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 한 해 명품관 매출의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 90% 이상 역성장했지만, ‘고메이494 한남’을 통해 한화갤러리아는 매출 하락분을 상쇄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같은 새로운 시도는 김 대표의 ‘변화’를 중시하는 성격에서 비롯됐다. 김 대표는 “회사 생활을 하며 저만의 신념은 항상 기존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어 새롭게 발전시키려 한다는 것과 다가오는 변화는 빠르게 흡수해 흔들림 없이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역사 혁신 임무 맡아... 지속 가능 성장 고민=김 대표는 한화역사 혁신의 선



김은희 한화역사 대표이사가 1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경영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그룹

대전 ‘메종 갤러리아’ VIP 기반 프리미엄 사업 성공 이끌어 코로나 극복·상생협력 주력... 민자역사 운영도 혁신 이끌 것

봉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한화역사의 사업 혁신 및 신규사업 추진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라고 본다”라며 “한화역사는 민자역사 운영에 있어 최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역사, 청량리역사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제가 역할을 할 기회가 생겼고, 갤러리아에서 추진된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경험을 한화역사에 접목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경

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김 대표는 한화역사뿐만 아니라 해관계자를 댔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상생 노력을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철도 유동객 감소 및 외국인 관광객 매출 급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운 영업환경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카페·음식점, 패스트푸드 등 식음료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은 혼자만의 노력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시적 임대료 인하 등 임대매장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문화도 더욱 유연하게 변화시킬 예정이다.

김 대표는 “급변하는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맞춰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재택근무, 거점근무 등 업무 형태들이 다행해지고, 디지털 도입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한화역사에 맞게 이러한 변화를 흡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 선배’ 김 대표 “긴 호흡으로 일해야 성장” 조언=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도 없는 난관을 겪은 김 대표는 이를 “모든 직장인과 관리자들이 겪는 어려움일 뿐”이라면서 “수년간의 업무 경험을 통해 저 스스로 다짐한 마음가짐은 일할 때면 철두철미하게 임하지는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 그저 주어진 업무에 집중했던 기억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 선배로서 김 대표는 CEO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회사 생활을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직장 생활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표는 후배 여성들에게 “여성 선배로서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과 가정, 양쪽의 일을 모두 잘 해내려고 하다 보면 본인이 번아웃(에너지소진)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호흡이 긴 레이스에 지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멘탈과 컨디션을 가장 잘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큰 자리에 대한 설렘보다는 부담이 큰 상황인데 많은 주변에서 용기를 주셔서 제가 부담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며 “이제는 조직과 선배·후배·동료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휴온스



엘루비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인정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 기준, 2020년 4월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원료 L.acidophilus YT1의 인체적용시험결과

- 여성 갱년기 상태지수(KI) 11가지 총점 개선
-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MENQOL) 4가지 항목 개선 확인



소비자 상담실 | 080-447-4700
판매사 (주)휴온스 |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극복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회복

전염병의 끝을 위한
질병정복

2021년 모두를 위한
전화위복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새해의 행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2020년, 힘든 시간을 이겨낸 모두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금융의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연원호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시험의 시간’ 맞닥뜨린 美, 바이든은 성공할까

바이든 정부의 성패는 미국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냐에 달려 있다. 1조9000억 달러 추가부양책의 적정성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연일 폴 크루그먼과 같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적정한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다. 바이든 정부는 과연 어디까지 국내 재건과 세계 질서 재편에 성공할 수 있을까.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프랑스의 세계적인 뮤지션 다프트 펑크의 2001년 곡이다. 미국의 재건을 위한 구호(“Build Back Better”)를 외치는 바이든 정부를 보면 이 노래가 귓가에 맴돈다. “세계를 향한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이 쇠퇴기(twilight zone)에 들어섰다.” 이 말은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미·중 간의 충돌을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설명해서 더욱 널리 알려진 허버드대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의 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말이 그의 최근 저서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가 1970년 포린폴리시 창간호에 실은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50년 전 미국에서도 자국 패권의 쇠퇴가 논의되고 있었으며 워싱턴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바빴다. 포린폴리시 창간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71년 금본위 달러 기축통화 체제인 브레튼우드 체제의 붕괴를 경험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스 아메리카를 연 미국으로서의 처음 경험

하는 위기였다. 따라서 미국인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국의 쇠퇴는 유럽의 부흥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에 기인했다.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위기감도 이와 상당히 유사하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도왔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 개혁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시장경제 체제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국은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 규범을 내재화하지 않았다. WTO 회원국으로서의 혜택만을 활용하며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2월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홍콩과 신장에서의 인권 침해,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대

한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든은 1월 취임사에서 지금이 미국에 있어 “시험의 시간(time of testing)”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시험으로 여섯 가지를 언급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코로나19, 빈부격차의 확대, 인종차별, 기후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은 어쩌면 소련 붕괴 이후인 1990년대에 이어 세계 정치경제 질서 재편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린 가능성이자 불확실성이다. 지금은 어떠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리더십을 발휘하는가가 중요하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성패는 미국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냐에 달려 있다. 케네디 독트린은 우리에게 쿠바 미사일 사태와 남미 공산화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근처에 걸린 핵심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언급한 자유라는 가치의 사수와 변명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어떠한 대

가를 지르더라도, 동맹국을 지원하고 적에 대항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가치와 동맹의 강조라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바이든 정부도 동맹을 위해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각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1조9000억 달러 추가부양책의 적정성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연일 폴 크루그먼과 같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적정한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다. 쌍둥이 적자를 겪고 있던 레이건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미 1989년 취임사에서 “미국은 의지는 있지만 자금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탈냉전을 맞아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싶었지만 그럴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2021년 코로나19로 영망이 된 미국의 사회·경제·정치를 마주한 바이든 정부는 과연 어디까지 국내 재건과 세계 질서 재편에 성공할 수 있을까. 더 열심히, 더 잘,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력한 리더십을 미국은 보여줄 수 있을까.

세계 프리즘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전 SK 사장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두 차례의 옥중 메시지에서 이 부회장은 원론적이지만 단호한 입장을 제시했다. 즉 책임의 일단은 자신에게 있으며, 기업 본연의 역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했다. 1월 18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더욱 자숙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했다. 삼성은 국민과 약속한 투자와 고용창출 등 본분에 충실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계적인 경영학의 구루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에서 자만은 성공이 선사한 부작용이라며 위대한 기업이 몰락한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그런 면에서 이 부회장이 제시한 겸손의 화두는 내용과 타이밍에서 삼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 부회장의 구속에도 요동치지 않은 것이 그 반증이라고

이재용의 위기관리

하겠다. 그럼에도 여전히 덮쳐오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삼성이 접근해 보기를 제안한다. 첫째는 ‘준법경영’. 사실 삼성이 다친 위기는 ‘준법’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삼성 내외부의 시각 차이였다. 술한 쟁점에 대해 삼성의 내부는 법을 지킨다고 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외부의 반론도 많았다.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을 삼성이 용인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교정시켜 주는 것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제대로 된 활동이다. 이 부회장의 실행을 선고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미래의 준법경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삼성의 내부 시각과 논리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이미 접수한 것이 아니냐는 경고의 표시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삼성 내부에서는 아무도 표현하지 못한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준법감시위원회가 공개적으로 행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 부회장이 하고 싶은 내부의 준법경영을 준법감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

부의 시각에서 정립시켜 주길 바란다. 두 번째 제안은 사회공헌활동(CSR)의 진정성과 자발성에 대한 재검토이다. 삼성의 사회공헌 역사는 길고 자원봉사, 어린이집 등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의미 있는 테마를 발굴해 키워냈다. 그런데 경영권 승계의 고비마다 공익법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사회와의 공감은 멀어지고 사업과의 연관성은 두터워졌다. 사회와 연계된 기부와 봉사가 권력과 청탁과 거래라는 프레임에 걸려 버렸다. 차제에 삼성이 공익법인 플랫폼 구축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가치와 철학을 정립하고 기부자나 국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찾아보게 하자는 것이다. 위기 이후 삼성의 정신이 극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치권과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삼성은 권력에는 공손했고 국민에게 미흡했다. 어느 기업도 예외는 없었다. 기업과 정치권의 관계는 항상 기술어린 운동장이었다. 쉽게 말해 돈 뺏기고 뺨 맞는 신세였다. 아길레

스건은 경영권 승계, 거의 모든 대기업이 그랬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자식에게 경영권의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그랬다. 모든 창업자가 물려났지만 모두 아들이 후계자는 아니었다. 그들은 강력한 혁신을 유일한 자산으로 자신의 기업에 물려주었다. 그리고 막장 정치에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정치권에 당당하게 요구했다. 트위터는 현직 대통령의 계정을 삭제했고 코카콜라, AT&T, 구글 등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중단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올바른(Correctness)이라는 가치를 기업의 정신으로 제시했다. 권력 포비아(Phobia)에서 자유롭게 된 삼성이 이리저리 말라는 법이 있을까? 쉽지 않으나 할 수는 있는 이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삼성에 다친 지금의 위기는 갈수록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기를 극복해 낸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가장 큰 박수가 쏟아질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리처드 필립스 파인만 명언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 아주 깊은 아름다움을 맛보기는 어렵다.” 과학을 일반화시키기에 힘쓴 노력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 물리학자. 양자론의 개척자이자 원자폭탄 계획의 ‘악동’이었던 그는 자연계가 제시하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내는 ‘천재’였다. 그는 오늘날 세상을 뒀다. 1918~1988. ☆ 고사성어 / 구두선(口頭禪) 입으로 선(禪) 수행을 말하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이다. 말로는 하겠으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는 행태를 비판할 때 쓰인다. 송(宋)나라 문자선(文字禪)을 비판해 널리 알려져 재근담(柴根譚)에 올라 있다. “책을 읽으면서 성현의 정신과 만나지 못한다면 서책의 노예가 된 것이나 진배없다.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복 입은 도둑이다. 공부하면서도 몸소 실행하지 않으면 입만 가지고 하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講學不躬行爲口頭禪]. 사업을 일으키고도 덕을 베풀기를 생각지 아니하면 눈앞에서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다름없다.” ☆ 시사상식/유비노마드(ubi-nomad)족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접속해 이용하는 사람.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유목민(nomad)의 합성어이다.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족보다 한 단계 진보한 이들은 휴대전화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웹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이용해 네트워크 접속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 ☆ 우리말 유래 / 지치다 ‘설사하다’란 뜻의 ‘즈다’에서 온 말. 설사할 때 탈진한 몸 상태를 뜻하는 말이 ‘피곤하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요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만큼 바쁜 사람도 없어 보인다. 자신을 세계 1위 부호 반열에 오르게 한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면서 ‘스페이스X’를 통해 화성 개척용 로켓도 쏘아 올리고 있다. 스타트업 ‘뉴럴링크’는 원숭이 두뇌에 비디오편입 장치로 이식했다. 뇌-컴퓨터 연결 기술로 사지 마비 환자의 감각을 되찾게 한다는 목표다. 한 번에 하나도 버거운 인류 숙원 과제를 동시다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뽐냈다. 머스크의 트윗 하나에 온라인 쇼핑몰 ‘옛시’, 오프라인 비디오 유통업체 ‘게임스톱’, 의료 부품 제조업체 ‘시그널어드밴스’ 주가가 폭등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도 머스크의 지원 사격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쯤 되자 일각에서는 시장이 ‘머스크 근접성(proximity)’에 따라 움직인다는 자조가 나온다. 경제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론 마켓(Elon Market) 가설’ 등장이다. ‘파파 머스크(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회원들이 머스크를 부르는 애칭) 현상은

‘괴짜 천재’를 향한 신뢰와 제도권에 대한 불만이 결합한 결과다. 미래 사회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에,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집념이 믿음을 불렀다. 또 기존 질서에 반항하는 태도도 젊은 세대엔 호감 요소다. 미국 게이들이 ‘기생충’으로 여긴 공매도 세력에 머스크는 ‘테슬라 쇼트팬츠’

를 선물했다. 공매도를 뜻하는 ‘쇼트(short)’를 활용해 조롱한 것이다. 머스크 신봉에 설득력이 있지만, 경계는 필요하다. 최근 테슬라는 중국 당국에 불려가 납작 엎드렸다. 중국이 법규를 준수하라고 질책하자 깊이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규제가 혁신에 방해된다고 텍사스로 이주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공매도 강화 위원회’라며 맞장 뜨던 패기는 없었다. 전투력은 상대를 봐가며 발휘하는 것인지, 결국 미국 IT 공룡들과 자본의 파우스트릭 거래(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의 이름을 딴 표현)를 닮아가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머스크 형, 그런 거 아니지?”

기자수첩

김서영 국제경제부/0jung2@



“머스크 형, 그런 거 아니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쯤 되자 일각에서는 시장이 ‘머스크 근접성(proximity)’에 따라 움직인다는 자조가 나온다. 경제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론 마켓(Elon Market) 가설’ 등장이다. ‘파파 머스크(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회원들이 머스크를 부르는 애칭) 현상은

‘괴짜 천재’를 향한 신뢰와 제도권에 대한 불만이 결합한 결과다. 미래 사회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에,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집념이 믿음을 불렀다. 또 기존 질서에 반항하는 태도도 젊은 세대엔 호감 요소다. 미국 게이들이 ‘기생충’으로 여긴 공매도 세력에 머스크는 ‘테슬라 쇼트팬츠’

를 선물했다. 공매도를 뜻하는 ‘쇼트(short)’를 활용해 조롱한 것이다. 머스크 신봉에 설득력이 있지만, 경계는 필요하다. 최근 테슬라는 중국 당국에 불려가 납작 엎드렸다. 중국이 법규를 준수하라고 질책하자 깊이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규제가 혁신에 방해된다고 텍사스로 이주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공매도 강화 위원회’라며 맞장 뜨던 패기는 없었다. 전투력은 상대를 봐가며 발휘하는 것인지, 결국 미국 IT 공룡들과 자본의 파우스트릭 거래(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의 이름을 딴 표현)를 닮아가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머스크 형, 그런 거 아니지?”

김범수를 주목하는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불평등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달 초 한국은행이 내놓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이고, 지니계수와 빈곤 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했다.

실제 국민도 경제 불평등을 심각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과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 의뢰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 인식'에 대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응답이 82.7%(매우 심해졌다 52.8%, 어느 정도 심해졌다 29.9%)로 나타났다. 모든 권역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전 연령대에서도 '심해졌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50대(60.1%)에서 '매우 심해졌다'라는 적극 부정 응답이 많았다.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한 응답자가 꼽은 양극화 심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34.1%)'이었다. 이외에도 '자영업자 매출 감소' 26.1%, '일자리 감소' 25.6%, '기업의 투자 감소' 4.6%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 계층은 폐업과 해고, 소득 감소라는 피해를 보았다.

데스크칼럼

최영희

IT중소기업부장



반면 '슈퍼카'로 불리는 초고가 스포츠카는 지난해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포르쉐는 7779대로 전년 대비 85.0% 늘었고, 람보르기니는 303대로 75.1%, 벤틀리는 296대로 129.5% 성장했다. 5억~7억 원대 롤스로이스도 6.2% 늘어난 171대를 기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백화점 명품 브랜드 매출 신장률 역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백화점에서 파는 선물 세트는 20만 원이 훌쩍 넘어도 불티나게 팔려 나가면서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라고 한다.

설 다음 날, 고향엔 가지 못하고 누님댁에 인사를 갔다. 차려진 상엔 떡국 속 파가 없다. 망원시장에 갔더니 대파 한 단에 8000원이나 해서 차마 장바구니에 담지 못했다고 한다. 서민들은 장 보는 것조차 겁이 나는데, 대출 금리는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2.45~2.7% 수준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개월 만에 0.3%포인트가량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도 마찬가지다. 작년 8월 평균 2.34~2.78%에 머물던 금리는 지난달 2.75~

3.55%까지 상승했다. 업계에선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가 뛰고, 금리가 오르면 더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양극화 심화의 시대, 10조 원 이상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기부 소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김 의장은 "격동의 시기에 사회 문제가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심화하는 것을 목도하며 더는 결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렇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해결할 수 없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불평등은 확대 재생산되고 수많은 갈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을 무력감과 절망감 속으로 밀어넣는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김 의장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다. 어쩌면 모든 이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면.

김 의장의 기부 선언이 양극화의 절대적인 해법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새 지평을 선언한 김 의장의 결단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che@

시설

AZ 백신 접종 논란, 불신 해소가 급선무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 등을 포함한 2~3월 접종계획이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의료계의 혼란과 함께 백신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시설의 고령층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AZ 백신 접종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백신 사용을 허가하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접종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유익성을 판단하라는 얘기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백신 부작용의 책임을 의사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많다.

영국에서 개발된 AZ 백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 따른 혼선도 빚어진다. 이 백신은 2회 투여로 62~70%의 예방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와 있다. 안전성에 문제는 없었지만, 고령층 임상참여자가 7.4%에 불과해 충분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 근거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유럽 상당수 국가가 고령층 접종을 제한하고 있다. 독일·프랑스·스웨덴·오스트리아가 65세, 폴란드 60세, 이탈리아와 벨기에에는 55세 미만으로 권고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65세 이상에서도 AZ 백신의 위험보다 이점이 크고 면역반응이 잘 유도됐다고 고령층 접종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AZ 백신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데 있다. 한국이 확보한 물량은 이달 24일부터 순차 공급되는 AZ 백신 75만 명분과,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달 말 이후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6만 명분뿐이다. 이 중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우선 접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요양원과 시설 고령층 입소자는 AZ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다.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크다. 최근 '코로나 백신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접종에 긍정적이었으나 32%는 접종을 미루거나 거절하고 싶다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AZ 측에 요청한, 고령층이 다수 참여한 임상시험 결과도 4월에만 나온다.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접종 이후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면 방역에 차질이 빚어진다. 정부는 9월 까지 전 국민의 70%에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접종 속도와 백신 물량 확보가 늦어질 우려도 크다.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보다 백신 접종에서 뒤처졌다. 코로나19 퇴치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논란이 적은 다른 백신을 최대한 서둘러 확보하고,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면역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접종자의 신뢰와 참여도를 높이는 일이다.

노트북을 열며

김준형
산업부 차장



'블랙 아이스' 사고 막는 법

일깨우기 위해서지요. 언제부터가 우리나라도 여름철 일기예보 때 '블랙자수'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온과 습도 차이를 기준 삼아 수치화한 '자수'를 발표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다양한 일기예보 가운데 우리나라에 절실한 지수가 있습니다. 제목에 언급한 대로 '블랙 아이스' 경보입니다. 블랙 아이스는 겨울철에 습설 또는 비가 내린 이후 기온이 급강하하면 도로가 얼어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빙판길만큼 위험하지만, 눈에는 일반 도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 대부분이 연쇄 추돌 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도로 위의 복병'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 북동부 일부 지역은 블랙 아이스 경보가 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일기예보 때마다 이를 경고하거나 지수로 만들어 예보하는 것이지요. 이른바 'Freezing Rain Risk'입니다. 영상의 기온 속에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직후 기온이 급격하게 영하로 떨어지면 블랙 아이스 경보를 내리는데, 이게 운전자에게 적잖게 도움이 되고 또 사고를 막아내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이런 블랙 아이스 경고는 우리나라 겨

울철에도 절실합니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정부와 관계기관이 안전운전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운전자 주의할 수 있도록 예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먼저 나서 이런 '블랙 아이스' 경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것이지요. 방식은 전방 도로를 달리고 있는 선행 차량에서 도로 결빙 정보를 전달받아 뒤차에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서 달린 여러 자동차의 속도와 실제 바퀴 회전수 차이, 주행안정장치 가동 여부 등을 종합해 블랙 아이스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같은 경로를 달리는 뒤차에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지요.

이른바 자동차와 자동차가 소통하고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본격화하면 이런 시스템은 일반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진화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조차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법 등 갖가지 규제에 종종 가로막혀 있어서 문제입니다. 언젠가 풀어야 할 규제라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도 다른 나라보다 이미 늦은 셈이니까요.

junior@

미리 보는 한 주 작년 4분기 분배지표 더 나빠졌을까

이번 주에는 소득·지출을 포함해 국민 살림살이 행편을 짐작할 수 있는 지난해 말 가계동향 지표가 공개되고, 우리나라 대외 채무 상황 등이 반영된 국제투자대조표도 나온다.

통계청은 18일(목)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3분기에는 5분위(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3%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1분위(하위 20%)는 1% 이상 줄어들어 정부의 각종 지원금에도 소득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의 경우 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됐던 시기였던 만큼 분배지표가 더 악화되었는지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19일(금) 작년 12월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를 공개한다. 9월 말(3분기) 기준 통계에서는 외채 건전성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2분기보다 좋아졌다. 준비자산(대외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4.3%로 6월 말보다 3.3%포인트 떨어졌고, 대외채무 가운데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28.2%) 역시 2.5%포인트 낮아졌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 4분기에도 외채 건전성이 계속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는지 주목된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는다. 기재부는 지난 달엔 "수출 회복세가 확대됐으나 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 지표가 둔화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전달에 이어 '불확실성 지속'을 언급했다. 지난 주 나온 1월 고용지표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인 98만 2000명을 기록해 아직은 낙관적 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2020년도 기업결합 동향을 발표한다. 2019년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371건)보다 55건 증가한 426건이었고, 금액은 4.7조 원 늘 24.3조 원 규모였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크게 변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결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관심이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첫 시작은 가전 맛집 BESPOKE 와 함께

비스포크 페스티벌

비스포크 100만대를 기념하여
결혼, 이사, 새 학기, 시작을 축하하는
맛있고 풍성한 비페를 준비했습니다
세일도 혜택도 맞춤가전 원조 맛집답게

BESPOKE Festival



2021.2.8~3.31 www.samsung.com과 가까운 삼성전자판매 매장에서

*100만대는 19년 5월 ~ 20년 12월 출하량 기준